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지역사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연계의 박물관 문화재 활용 교육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오 명 숙

2020년 2월



제주 지역사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연계의 박물관 문화재 활용 교육 연구

지도교수 전 영 준

오 명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2월

오명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12월

**A Study on the Education Using Cultural Assets in Museums
in Connection with Elementary Schools for
the Education of Jeju Regional History**

Oh, Myeong-suk

(Supervised by Professor Jeon, Young-J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20. 2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방법과 내용	5
II . 지역사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활용	8
1. 지역사 교육의 의의	8
2. 역사교육과 문화재 활용	10
3. 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15
III . 초등 지역화 보완교재 수록 지역사 분석	19
1. 초등 3 학년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시' ③	19
2. 초등 4 학년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22
3. 제주시내 초등학생들의 제주역사에 대한 인식 조사	30
IV .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 교육 방안 ..	33
1. 2019 년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36
2. 박물관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사 교육 방안	41
IV . 결론	58

참고문헌	61
국문초록	64
Abstract	66
【부록】	68

표 차례

<표 1> 지정문화재의 종류	10
<표 2> 문화재의 종류	10
<표 3> 제주도 국가지정문화재	11
<표 4> 제주도 국가지정문화재	11
<표 5> 제주도 국가지정문화재 및 지역화 보완교재 수록 여부	12
<표 6> 문화재 활용방식 분류	13
<표 7> 제주도 등록 박물관 현황	15
<표 8> 지역화 보완교재와 연계 가능한 박물관 유형	16
<표 9> 초등 3학년군 지역화 교재 수록 문화재	21
<표 10> 초등 4학년군 지역화 교재 수록 문화재	23
<표 11> 3학년 지역화보완교재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시' 역사영역 단원서술 분석.....	24
<표 12> 4학년 지역화보완교재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역사영역 단원서술 분석.....	28
<표 13> 국립제주박물관 문화재 소장품 현황	35
<표 14>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품 현황	35
<표 15> 2019년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36
<표 16> 초등 3·4학년 지역화교재에 따른 박물관유물과 연계한 학습주제	42
<표 17> 박물관 문화재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 ①	45
<표 18> '찾아가는 박물관'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①	46
<표 19> 유물 컨테스트 표 예시	48

<표 20> 박물관 문화재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②	50
<표 21> '찾아가는 박물관' 문화재활용 예시②	51
<표 22> 박물관 문화재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③	54
<표 23> '찾아가는 박물관'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③	55

그림 차례

<그림 1> 초등 지역화 보완교재 '살기좋은 우리고장 제주도'③.....	19
<그림 2> 초등 지역화 보완교재 '아름다운제주특별자치도'④.....	22
<그림 3>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보기	33
<그림 4> 어린이 올레 전시관 전경	37
<그림 5> '학교, 박물관을 찾다' 활동지	38
<그림 6> 교구상자 목록 및 해녀상자	39
<그림 7> 박물관탐험대 활동지	39
<그림 8> 별 보러 가자! 활동지	40
<그림 9> 할망·하르방 지혜의 샘 '겉건 들어보라' 활동지	40
<그림 10> 박물관수업 예시① PPT	47
<그림 11> 박물관수업 예시① 유물카드 예시	48
<그림 12> 마패 만들기, 샤가이	52
<그림 13> 몽골의 영향을 받은 문화 사진자료	53
<그림 14> 탐라순력도 병풍 만들기	56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주는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 축적되어온 제주만의 독립적이고 특수성을 지닌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체 한국사와의 관계에서 종속과 독립의 경험을 겪으면서 공유된 제주만의 특수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지역 곳곳에서 고고유물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지방행정체제의 완성과 대몽 항쟁기를 전후하여 삼별초의 입도로 중앙의 정치·문화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몽골의 목호들이 입도하므로 목축중심의 몽골문화가 전래되면서 제주사회의 커다란 문화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당대의 높은 학문적 소양을 갖춘 많은 학자들과 중앙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의 유배지의 기능을 하면서, 그들이 남긴 유배문화의 흔적들이 학문과 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들을 남기기도 하였다. 지정학적으로도 일본과 중국·동남아로 나아가는 길목으로 표류·표착(표도)¹⁾의 역사를 품고 있는 새로운 문화의 이식지이면서도 교류의 기착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자체의 오랜 역사와 이식된 새로운 문화와 결합한 제주만의 독특한 역사는 국가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흥미롭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역사연구의 다변화로 거시적인 관점의 국가 전체사 역사인식을 극복하고 생활·문화사 중심의 미시적 역사교육이 확대되었다. 이에 교육과정의 강화에 따라 지역의 생활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 교육은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역사교육의 교과 과정에서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5,6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사 교육이 더욱 강조되었고, 초등과정에서는 인물사와 생활사 중심의 교육과정이 편성되면서 역사인식의 다변화가 크게 확장되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 교육을 위해 새로운 보완교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등 3·4학년 과정에서 교과서에 따른 지역화 보완교재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²⁾ 초등 3학년시기에 역

1) 표류(漂流)는 제주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다른 지역에 도달한 경우, 표착(漂着)·표도(漂到)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주에 도착한 사례를 말한다(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2005, 72쪽).

2) 3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서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단원에서 '우리고장의 옛이야기', '우리

사의식의 발달 단계³⁾를 살펴보면 고금(古今)의식이 발달하므로 ①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주관적으로 설명하고 ② 현실과 허구의 구분이 가능하며 시간의 흐름과 거리감을 인지 할 수 있다. 4학년 시기는 변천의식이 발달 하므로 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천의식을 인식하고 직접원인에 의한 인과관계를 파악 할 수 있고 ② 연표사용이 가능하며 영웅과 무용담에 흥미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초등 3·4학년의 이러한 인지적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공간적 인식에 따른 교과과정의 편성에서도 자기가 살아가는 고장과 더 확대한 지역을 사회과에서 배우게 된다. 즉, 초등학교에서 향토사 관련 내용의 편성이 향토사 자체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간인식의 단계성을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초등 5학년 시기에 전체사를 배우기 이전인 초등 3·4학년군에서 지역생활사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다.

현재 지역사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교재는 2018년 제주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초등3·4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보완한 지역화 보완교재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성원으로 공동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에 대해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포함하는 지역 전반적인 학습 교재이므로 지역사적인 부분의 서술이 적고 내용도 소략하다. 지역사(史)도 지역화(化)의 한 과정이지만 주체적이고 근본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에서 비롯된다.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화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된 초등3·4학년 시기에 집중하여 활성화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초등사회과의 지역화 보완교재에서 제주 지역사 영역이 상당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역유물을 중심으로 박물관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여 지역사 영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친근하고 익숙한 지역문화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과 역사적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추체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제주는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대부분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하여 보존하는 제주문

고장의 문화유산'을 구성되어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사 보완교재로 배우고 있다. 4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서는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단원에서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우리지역의 역사적 인물'로 단원이 구성되어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를 보완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3) 송춘영, 『역사교육의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1999, 139-160.

4) 강봉룡, 「초등학교 향토사교육의 실제와 지향점」, 『역사교육』 87, 2003, 139쪽.

화재의 寶庫와 같은 곳이며, 지역문화 전달의 효과적인 학습공간으로 대표적인 곳이다. 최근 박물관의 운영 형태에서도 다양한 교육기능을 수행하여 수동적인 전시 관람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며 소통하는 체험적 교육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고고유물을 비롯한 다량의 제주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의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 교육의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역문화재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찾아내고 흥미로운 지역사 교육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주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교육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제주의 문화 활용에 대한 연구로는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문화자원과 다양한 문화재의 활용은 지역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제주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 이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문화재 정책과 지역발전전략 자원으로 활용적인 면을 강조하여 교육학적인 측면의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였다.⁵⁾ 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분석하고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박물관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 논문에서는 박물관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지역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관광객들에게는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수입 증대라는 다중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결론을 제시하였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제시 부분이 빠진 것은 본 연구의 방향과 다른 점이었다.⁶⁾

이러한 관점에 더하여 학교 현장의 선사시대 교육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사유적 박물관에 주목하고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교육적 활용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삼양동 선사유적박물관의 체계적인 연구가 전무한 실정을 언급하며 학교교육에서 삼양동 선사유적박물관의 적극적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였으나 역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⁷⁾ 박물관의 소장문화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국립제주박물관의 『탐라순력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요소를 적용하여 박물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5) 현을생, 「제주도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강은실,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7) 임보아, 「선사유적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분석: 제주 삼양동유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제시하여 18세기 제주의 역사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⁸⁾ 이와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장기적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이 보완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점을 제언하였다. 특히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의 프로그램운영의 구조적 측면개선을 제시하였다.⁹⁾

박물관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접근은 비단 역사 유물에 그치지 않고 제주신화를 향토사 학습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제주신화를 향토학습의 소재로 제주신화를 주목하여 교육적 가치 및 실제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다.¹⁰⁾ 지역사 학습을 위한 현장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주민속촌박물관을 사례로 현장학습의 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하면서, 현재 제주도 민속자료를 전시한 박물관의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하지 못함을 느끼며 제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지속되어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¹¹⁾ 제주도 3·4학년 지역교과서를 중심으로 지역화에 대한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는 제7차 3·4학년 사회과 지역 교과서 내용 구성을 검토하였다. 지역화교과서의 활용도를 분석·검토하여 제주도 초등 지역화 학습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¹²⁾

한편, 제주지역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에 주목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보다는 의견 제시에 그치거나,¹³⁾ 매우 제한적으로는 제주돌문화 공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¹⁴⁾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제주지역 문화재와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논문의 주요 관점으로는 제주도 문화재의 형성 배경을 조사하여 제주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의 발굴과 이것을 제주지역 발전에 중요한 자원으로 유지 보존되고 활용가치가 있는지를 고찰한 것이 많았다. 또한 박물관에 관한 대다수 연구들은 지역의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

8)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9) 한지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0) 고안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1) 문은아,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지역화 학습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주민속촌 박물관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2) 강경미, 「濟州道 初等 社會科 地域 化教授·學習에 關한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13) 정영임,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4) 윤기혁,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제주돌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 연구 논문에서도 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수업의 활성화와 교육방법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지역문화재를 가지고 지역사 교육과 연계한 교육내용과 초중등교과서의 지역사교육의 방향성의 제시는 미미하였다. 무엇보다도 지역 박물관의 소장 문화재를 활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학교 교과와 연계한 구체적 연구가 부재하였다. 따라서 현재 교과서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 3·4학년들의 역사교육의 동기부여와 흥미를 주기 위해서 지역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은 역사교육이라는 전체적인 틀에서 매우 의미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재의 교육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원이 지역민의 정체성 확립과 활용에 효율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주안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교육이 정규교과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유념하여, 학교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는 학습 유형으로 박물관 체험활동과 비교과 활동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역사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지역화 보완교재가 소략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역사 교육의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먼저 지역화 보완교재의 역사 영역에 수록되어 있는 지역 문화재를 분류하고 수록된 문화재 내용들을 살펴보겠다. 이러한 보완교재의 분석내용을 기반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역 박물관의 문화재를 활용하여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구성하고자 한다. 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적 상상력을 키우고 시대를 키우고 탐구하는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측면에서 국립제주박물관을 선정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지역 박물관과 그 외 장소에서 1차적 수업 후 박물관 현장 체험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 국립제주박물관의 소장문화재라는 한정된 자료 활용과 박물관이라는 장소적 제한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고고유물자료를 비롯하여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역사적 유물과 사료를 소장하고 있으므로 국립제주박물관 활용은 적절한 필요선택으로 보았다. 초등과정의 단계에서 문화재를 가지고 시대를 읽어가는 통찰력을 어렵지만 시대적 접근을 유도하고 각인시켜가는 매개체로서는 활용도가 큰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 인물, 사료, 역사적 사건 등의

다양한 관점을 포괄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상적 접근¹⁵⁾과 친근감 있는 지역 문화재를 지역사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무엇보다도 박물관 소장 문화재는 대체적으로 사료로써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이고, 발굴된 유물의 역사적 가치가 평가된 이후에 전시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 선택의 신뢰성과 정확성도 이미 검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박물관 교육이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이 활성화되며 이용하는 대상의 범위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물관에서 지역에서 발굴하여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구성원들과 친밀감과 이해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에도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I 장과 II 장에서는 서론과 지역사교육의 이론적 배경 및 문화재와 박물관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III 장에서는 초등 사회교과서 3.4학년군의 지역화 보완교재에서 지역사 영역을 중심으로 단원을 분석하여 박물관과 연계하는 지역사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에서 '창의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주 시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통계를 활용한 효율적인 역사교육을 구체화할 것이다.

IV 장에서는 2019년 국립제주박물관의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박물관 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을 찾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지역화 보완교재의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박물관과 학급연계 프로그램으로 교수·학습안을 계획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교육이 불가능 할 경우 각 학교로 '찾아가는 박물관' 형태의 수업으로도 계획하고자 한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재 체험활동의 대부분은 유적지현장을 직접 탐방하기보다는 박물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박물관 현장체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박물관 체험활동은 교사의 직접적인 인솔과 안내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며 활동지를 채우기 위해 단순히 전시물을 관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 현재 초등과정에서 확인되는 방과 후 학교 '창의역사' 프로그램에서는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라는 문구처럼 문화재 모형 만들기, 문화재를 활용한 놀이와 보드게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흥미와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문화재 활용은 결국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확장하

15) 상상적 접근은 역사적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신장 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이다. 박상혜, 「상상적 접근 질문을 통한 문화재 교육 방안」, 『교육문화연구』 24, 2018, 307쪽.

여 사고력과 탐구력을 통한 추체험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초등과정의 학습자들이 직접 느끼는 바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구체화된 지역사 교육의 확장성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II. 지역사 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활용

1. 지역사 교육의 의의

지역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경제, 문화 따위에서, 어떤 일이 일정한 특징을 갖는 지역으로 된다는 의미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史)'와 '지역화(化)'의 의미를 구별하여 쓰고자 한다. 지역사는 '지역의 역사'를 의미 한다고 보며 지역화는 '지역에 대한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의 의미도 지역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우리고장의 역사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과정으로 지역화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개념에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사 연구는 지역적 특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무엇보다도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그들만이 만들어 낼 수 있었던 특수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에 관심을 경주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은 민족문화적인 보편성의 기반 위에서 나타난 것이어야 하며, 그 양자의 비교 속에서 지역적 성격이 명쾌하게 설명되어야 존재가치(의미)도 선명해질 수 있다.¹⁶⁾ 지역사 교육은 학교 정규교과로서는 현재 초등3·4학년 사회과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5·6학년과정에서부터 한국사 영역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정규 교과과정에서 지역사를 배우는 시기는 초등 3·4학년군 교육과정에 한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 시기에 지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은 미래의 지역을 이끌어갈 구성원들에게 지역의 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교육적 측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에서는 초등 3학년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시(서귀포시)'와 4학년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역화 보완교재로 제작하여 보급,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지역사 교육의 필요성은 먼저 지역 정체성의 함양이 주요 목적이다. 정체성 문제는 역사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지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점 또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또한 지역정체성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문화적 산물이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과 과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역정체성의 양상은 살펴볼 수 없다.¹⁷⁾ 따라서 지역사교육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이해, 자신들보다 한세대 앞에 있었던 지역의 역사, 혹은 그보다 이전시대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지루해

16) 이해준,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 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 1998, 146쪽.

17) 오아린, 「인천지역 고등학생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사 학습방안연구-인천시립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쪽.

하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흥미를 느끼며 접근한다. 때로는 상세한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서도 익숙하게 여긴다. 역사과목에 대해 별 흥미를 느끼지 않았던 아이들도 최소한 이러한 것에는 관심을 보인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재의 삶과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넓은 범주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민주시민의식과 맥이 닿을 수 있는 것이며, 참여 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는 바로 이점에서 시민의식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¹⁸⁾ 현재에는 유동 인구의 증가로 새로운 구성원의 유입과 국제적 교류가 빈번해짐으로 국가와 지역에 대해 정체성이 모호해져 지역구성원들의 결집이 느슨해지고 나아가서는 지역구성원들의 이탈이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역사교육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이며 지역사회를 굳건히 하며 지탱하는 지역사회의 근원이 된다.

둘째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내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역사의 정신적 산물인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지역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새로운 제주 관광자원으로 떠오른 제주의 '밭담'은 제주를 상징하는 미학적 요소 중의 하나로 꼽는다. 조선시대에 제주도를 방문했던 선비는 끝없이 이어지는 제주도의 돌담을 보고 검은 용이 길게 펼친 것처럼 '黑龍萬里'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제주의 돌담은 쌓는 장소와 목적, 역할에 따라 울담, 원담, 밭담, 산담, 잣담 등의 다양한 이름이 붙으며 세계중요농업 유산이기도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생활 주변에서 흔하지만 가장 제주다운 돌담의 우수성과 가치를 발견하여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지역사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재인식은 지역 문화재의 소중함과 지역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며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타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로 인해 수용과 포용의 문제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 교육은 애향심을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지역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교육을 통해 지역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당면한 지역 단위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뿐 아니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 또한 장점의 하나이다.¹⁹⁾ 애향심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책임 있는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사는 일반적인 역사학습에서 전체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사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역정체성

18) 황현정, 「지역사·역사수업, 그리고 역사교사」, 『역사와 교육』 7, 2013, 127-128쪽.

19) 조상제,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교육」, 『역사교육』 68, 1998, 133쪽.

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배워가는 초등학교시기에 지역에 대한 관심을 부여하는 것이 지역사 교육의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2. 역사교육과 문화재 활용

1)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는 옛사람들이 남긴 정신과 물건들에서 시대상이 잘 반영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로서, 보존과 전승을 해나가야 할 귀중한 사료들을 말한다. 문화재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내재되어 온 정신적 산물이며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공동체 의식의 모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의한다.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가치가 큰 것을 국보, 보물, 무형 문화재, 유형 문화재, 민속자료 등으로 지정문화재를 나누는데 문화재청장과 시장·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문화재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1> 지정문화재의 종류²⁰⁾

유형별 지정권자별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중요민속자료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 무형문화재
시·도 지정 문화재	지방 유형문화재		지방 민속자료	지방기념물			지방 무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문화재 자료						

문화재청에 의하면 문화재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²¹⁾

<표 2>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	유형 문화재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무형 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20) 문화재청, 『문화재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다원, 2000, 17쪽.

21)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총칙, 2015 개정.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기념물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또한 제주도의 지역 문화재를 활용하기 위해 먼저 지역 전체의 문화재 현황을 정리해 보면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제주도 국가지정문화재²²⁾

구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명승	국가무형 문화재	국가민속 문화재	등록 문화재	계
도 일원	-	-	-	2	-	-	-	-	2
제주시	-	6	6	26	1	4	3	8	54
서귀포시	-	1	1	21(23)	8	1	6	16	54
계	-	7	7	49	9	5	9	24	110

<표 4> 제주도 도지정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계
도 일원	-	1	-	-	-	1
제주시	24	13	82	49	9	177
서귀포시	12	7	46	33	1	99
계	36(32)	21	128(51)	82(10)	10(9)	277(122)

제주도 주요문화재 중에서 지역화보완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22) <표 3>와 <표 4>, <표 5>은 제주도청 세계유산 문화재부 2018.12월 현재 제주문화재에 보고된 자료이다.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보완교재에 수록된 대부분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수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를 이해하기 하고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들이 필요하다.

<표 5> 제주도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및 지역화보완교재 수록 유무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역화보완교재수록유무
보물	322	제주 관덕정	수록
	1187	제주 불탑사5층 석탑	수록
	652-6	탐라순력도	수록
	569-24	안중근의사유묵(天與不受 反受其殃耳)	
	547-2	예산 김정희 종가유물 일괄	수록
	1510	최익현 초상	
	1902	제주향교 대성전	수록
사적	134	삼성혈	수록
	380	제주목 관아	수록
	396	제주향파두리 향몽유적지	수록
	412	제주 고산리선사유적	
	416	제주 삼양동선사유적	수록
	487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수록
	522	제주 용담동 유적	수록
국가 민속 문화재	32	제주애월 말방아	수록
	-1	жат동네 말방아	
	-2	당거리동네 말방아	
	68	제주성읍마을 객주집	
	69	제주성읍마을 고평오 고택	
	70	제주성읍마을고창환고택	
	71	제주성읍마을 한봉일 고택	
	72	제주성읍마을대장간집	
	188	제주성읍마을	
	240	제주도 내왓당무신도	
국가 무형 문화재	4	갓일-총모자(강순자) -양태(장순자)	
	66	망건장(강전향)	수록
	67	당건장(김혜정)	
	71	제주 칠머리당굿(김윤수)	수록
	95	제주민요	수록

2) 문화재 활용

문화재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²³⁾ 먼저 원형활용과 변형활용 방법이 있으며 직접 활용과 간접 활용으로도 나눌 수 있다. 원형활용은 문화재를 변형이나 변용 없이 본래의 상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박물관견학이나 현장답사를 통해 직접 관찰하는 형태를 말한다. 변형활용은 문화재 보존·전송의 테두리 안에서 오늘날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변용하거나 개조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실내에서 문화재 만들거나 그리기 등의 학습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직접 활용은 1차적 접촉상태를 말한다. 관람이나 감상, 답사 등 문화재 자체를 실물로 직접 접하며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 활용은 문화재를 직접 접하지 않고 2차적 산물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²⁴⁾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문화재 활용방식 분류

활용방식	원형 활용(현재화)	직접 관찰 (박물관, 현장답사)-지정문화재
	변형 활용(현대화)	등록 문화재 건축물을 개조하여 박물관이용 - 등록 문화재, 무형문화재
	직접 활용(1차적)	문화재, 박물관 답사-현장답사
	간접 활용(2차적)	문화재 체험-모형 만들기, 영화, 역할극 등

문화재 교육이란 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문화재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학습을 포함한다. 문화재를 소재로 한 즉, 문화재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문화재 학습은 문화재에 관한 학습과 문화재를 통한 학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²⁵⁾

바쏘(G.)는 “유물·유적 등의 문화재가 학습 자료로써 활용될 때 설명 또는 예증의 기능, 상상력을 자극하고 발달시키는 기능, 증거 또는 일반적 기능과 개념을 형성하

23) 문화재 목적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교육적 활용은 문화재를 교육에 활용하여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적욕구를 충족하려는 활동을 말하며, 지역적 활용은 문화재를 구심점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공고히 하는 것을 지역적 활용으로 분류하고 있다(류호철, 「문화재 활용의 개념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문화재』 47, 2014, 11-12쪽).

24) 류호철, 앞의 글, 2014, 13쪽. #원형활용에서 ‘현재화’라는 것은 변화를 거치지 않은 원래 상태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문화요소로 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보존을 강조하는 유형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원형 활용 사례일 것이다. 변형활용에서 ‘현대화’라는 의미는 큰 틀에서는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되 오늘날의 필요에 의해 적절한 수준에서 변화나 변용을 거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1차적 활용은 현장에 가서 문화재를 답사할 때나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를 관람할 때, 즉, 그 문화재를 직접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직접 활용에 속한다. 이와 달리 문화재를 직접 접하지 않고 복제품이나 매체를 통해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이나 문화재를 소재로 한 창작물을 활용 하는 것을 간접(2차적)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모형을 만들거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것 등을 말한다.

25) 최희정,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문화재관련 내용의 분석과 재구성」,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6쪽.

고 실제감 또는 현실감을 전해주는 기능,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추측과 해석·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²⁶⁾고 하였다.

문화재가 없으면 역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문화재는 역사를 구성하는 기본요소이다. 또한, 문헌자료와 달리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비교적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면서도 접근하는 방식과 관심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대상이다.²⁷⁾ 문화재는 역사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넘어 시대를 연결하는 전달 매개체로 가장 확실한 자료이다. 때문에 초등과정에서는 매우 추상적일 수 있는 역사를 문화재를 통해 생생한 상상력으로 과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 학습은 역사적 탐구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문화재를 탐구하면서 과거의 시간이나 행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출함으로써 역사적 탐구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조상들의 생활·문화·역사 등의 총체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면서도 추론이나 상상력을 통한 이해도 가능하다.²⁸⁾

둘째, 상상적 접근과 이해가 빠르다. 특히, 향토문화재는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친근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삶을 이해하는데도 상상적 접근이 빠르다. 여러 가지 환경이 같은 공간에서 체득한 공동체 삶을 공유함으로써 과거로의 감정이입이나 추체험이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역 문화재 교육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키울 수 있다. 지역 문화재를 탐구하고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제주역사 및 제주문화에 대한 소중함과 지역구성원으로서 보존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지역 문화재는 구성원들의 정신과 생활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문화적 소산이며 동일한 정서를 심어주고 가꾸는데 큰 역할을 한다.

넷째, 역사학습의 동기부여와 흥미유발을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중심의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면서 수준별 교육운영을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였다. 이에 문화재답사, 문화재 만들기 등의 역사교육 방법론과 체험 학습이라는 기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제주의 문화재는 지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 외에도 제주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지역사의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제주지역은 어느 한 시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내포하고 누적되어온 다양한 문화재들이 널려 있어 제주야말로 ‘지방 없는 박물관’이라할 수 있다. 따라

26) 최희정, 앞 논문에서 재인용.

27) 최용규·권오현·김주성·김한중·황인석·조운호·김태완·이혜영·장영기, 「초·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05~2006년 문화재청 위탁연구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 연구소, 2006, 9쪽.

28) 전영준,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중등역사수업의 문화재 교육」, 『역사실학회』 66, 2018, 430쪽.

서 제주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 교육에서 문화재 학습의 의미는 제주 문화재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찾아내고 흥미로운 제주사 교육의 교육콘텐츠로 활용되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미래의 지역구성원들이 지역의 문화재를 접하면서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지역 인재의 육성이라는 교육적 가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과거의 산물이라고 한다. 현재의 모든 사실들이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화재는 이러한 과거의 실마리를 제공 하는 것으로 기초적 탐색 대상이 된다. 초등과정에서는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박물관에 문화재 견학이나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역사의 흥미를 느껴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재는 이러한 역사교육에 흥미와 역사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역사적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제주도는 관광지 유명세만큼 여러 유형의 박물관도 많다. 국립제주박물관을 비롯하여 등록박물관은 총 47개소이며 전시관과 자료관도 21개소가 있다.²⁹⁾

<표 7> 제주도 등록 박물관 현황

등록 박물관	1종	교육박물관	1	제주시 1
		대학박물관	1	제주시 1
		교육박물관	1	제주시 1
		공립박물관	9	제주시 6, 서귀포시 1
		사립박물관	21	제주시 6, 서귀포시 15
	2종	전시관·자료관		제주시 9, 서귀포시 12
		식물원	9	제주시 4, 서귀포시 5

박물관의 성격은 역사, 환경, 문화, 인물 등의 주제에 따라 박물관과 전시관이 운

29) 제주도청 자료, 2019.

영되며,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과 사립 박물관으로 나누는데 소장 문화재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분류하였다. 제주가 관광도시임을 감안할 때 제주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만큼이나 박물관 성격도 다양하고 그 수도 많다. 오히려 너무 난립 하여 주제와 의미가 퇴색되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박물관과 전시관, 자료관이 각각의 건립 배경과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종류가 다르므로 짜임새 있게 박물관을 활용한다면 지역사교육의 열린 공간으로 큰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화 보완교재와 연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지역화 보완교재와 연계 가능한 박물관 유형³⁰⁾

구분	명칭	소재지	소장자료(점)	개관일	분류
1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시	유물 37,673점	2001.06.15	역사
2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시	제주고유민속, 자연사자료 41,432점	84.12.03	민속 자연
3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시	교육자료 38,064점	95.09.13	교육
4	제주민속촌	서귀포시	고서적, 민속자료 등 187점		민속
5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시	민속자료 11,111점	01.07.28	민속
6	제주평화박물관	제주시	사진, 군대용품 311점	04.05.12	전쟁역사
7	감귤박물관	서귀포시	민구류, 감귤 등 1,413점	05.02.25	농업
8	제주돌박물관	제주시	화산암 29,021점	06.05.08	자연(돌)
9	해녀박물관	제주시	해녀관련 3,861점	08.02.29	해녀
10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시	문서, 유품 등 5,488점	10.11.18	역사
11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서귀포시	항공천문우주 분야 266종 574점	14.04.2.1	항공우주
12	김만덕 기념관	제주시	고서, 민구류, 근현대 사진 등	16.03.28	인물역사

30) 제주도청 자료, 2019.

			284점		
13	세계자연유산센터	제주시	화석 등 514점	17-06-05	자연
14	제주해양동물 박물관	서귀포시	해양동물박제 1만점	18-04	해양 동물
15	제주 추사관	서귀포시	고서화 105점	10-12-27	인물역사
16	제주옹기박물관	서귀포시	옹기 154종 305점	10-05-28	생활 공예
17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시	민속자료 2,171점	17-06-05	민속
18	돌하르방공원	제주시	돌하르방 156점	07-08-30	자연

박물관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요소를 전시물이라고 할 때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전시물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시물 기반 학습은 박물관 교육을 학교 교육과 구분시켜 주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이다.³¹⁾ 여기서 박물관 교육이라는 것은 특정한 교육적 목적을 위해 박물관을 활용한다는 의미이다.³²⁾ 박물관 교육은 전시된 유물을 활용하여 학습자 능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시되었을 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늘날 박물관 교육은 전시물과 이용객 사이의 모든 형태의 소통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문화재를 수집하고 연구·보존·전시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과 취미, 여가를 누리는 문화 소통의 기관으로서의 활동이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박물관은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 장소로서 가장 적합하다. 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역사교육은 사료 선택의 신뢰성과 정확성도 이미 검증이 된 경우이다.

그러므로 제주의 지역사 교육을 주제로 하는 본 연구의 방향성을 규정지을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유물을 다량으로 소장하고 있는 국립제주박물관이다. 국립제주박물관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주의 대표 역사박물관으로서 지역구성원들의 문화적 소양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적 프로그램이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초등교육과정에서는 박물관을 활용한 현장학습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수·학습방법' 부분에서는 탐구 지향적

31) 최중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박물관(미술관)교육의 이론과 학습 환경」, 『한국박물관교육학회』 5, 2012, 121쪽.

32) 강선주, 「박물관 활용 역사수업 방안」, 『기전문화연구』 34, 172쪽.

수업을 위해 현장학습과 사료학습 등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도, 도표, 방송, 사진, 기록물, 유물 등 다양한 자료의 활용도 강조하고 있다.³³⁾ 따라서 초등과정에서 박물관 체험교육은 초등과정에서 권장하는 교육방법으로 실증적 자료를 직접 보고·듣고·체험하는 생동감 있는 역사수업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지도교사의 사전준비가 철저하다면 또 하나의 '학교 밖 교실'로 신나는 학습을 이끌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큰 곳이다. 따라서 박물관 교육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열린 학습공간으로서 학교교육의 프레임을 벗어나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학교교육과는 달리 교육기간이나 교육 대상의 연령을 한정해 놓고 일정 교육효과를 검증하는 형태의 단편교육이 아니라 소위 열린 교육, 평생교육의 형태를 띠고 있다.³⁴⁾

두 번째, 박물관은 지역사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의 주요 학습기관으로 정규 교과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구성원들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교육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교육은 학교교육에서만 모두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다만 학교는 상위교육기관으로서 지역사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 지역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지역화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다. 지역화 교육은 어느 한 시기에만 해당되지 않는 평생학습교육이며 이로써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문화의 형성과 정착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지역화교육은 지역박물관의 역할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속한 여러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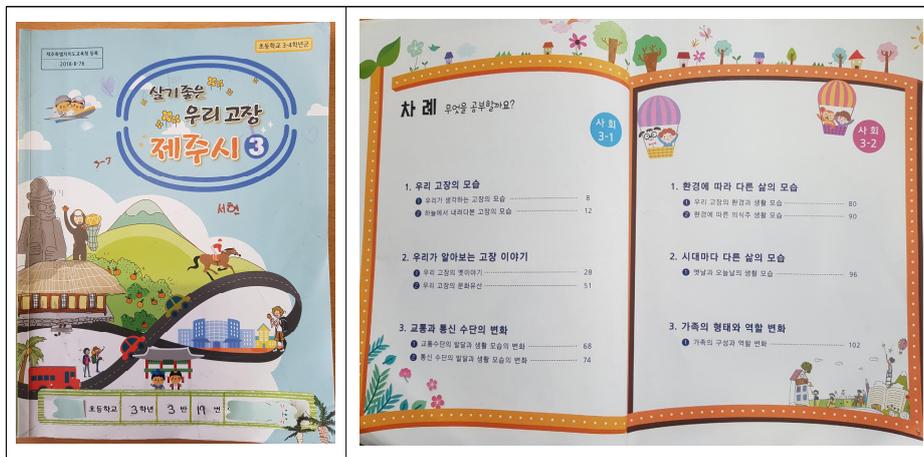
33)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1998, 433쪽; 손연주, 「초등학교와 연계한 박물관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쪽 재인용.

34) 한지윤, 앞의 논문, 2007.

Ⅲ. 초등 지역화 보완교재 수록 지역사 분석

현재 학교 교과과정에서 지역사 교육과정은 초등과정 단계에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시기의 지역사 교육의 중요도는 매우 큰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지역사 교육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방법들을 고안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4학년 과정의 역사영역은 학습자의 생활 주변의 문화재를 알게 함으로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역사학습의 동기부여와 흥미 유발로 쉽게 역사학습으로 접근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현재 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체험과 개념중심의 학습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2015 개정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역사영역은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 요소를 적정화했다³⁵⁾. 따라서 '지역사'가 강화되고 생활사와 인물사 중심으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체험하면서 개념 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 영역을 포함하는 3·4학년 사회과 교과서에 따른 지역화 보완교재의 지역사 영역을 살펴보았다.

1. 초등3학년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도' ③



<그림 1> 지역화보완교재-주시③

3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고장'을 주제로 학습한다. 특히 우리고장, 우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과정이므로 우리고장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문화적인 전체 현상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3학

35) 교육부,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2018.

년 과정에서는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도'와 '살기 좋은 우리고장 서귀포시'로 분리하여 개발되었다. 먼저 보완교재의 활용안내에서의 구성과 기대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구성

▣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도」 지역단원 구성은 '단원→주제'의 순으로 학기별 3단원씩 총 6단원(주제 : 총 10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원에서 배울 학습 내용을 담은 지도와 사진, 사료와 글 등 지역 단원과 연계하였습니다.

▣ 단원마다 그 주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활동 아이디어와 지역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 캐릭터(굴림, 오름)를 활용해 학습의 성취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사회 교과서의 내용 체계에 따른 보완교재로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각종 지도, 재미있는 지역 이야기나 사진, 삽화와 QR코드 등을 수록하여 지역화 수업에 도움이 되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초등학교 3~4학년 군 사회과 보완교재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제주도」 개발과 보급으로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 교수 학습에 어려움이 해소되고 지역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 자료와 지도, 사진, QR코드 등을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내함으로써, 학생의 흥미와 탐구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³⁶⁾

교재 내용 구성을 보면 지역의 역사영역은 1학기에는 전체 쪽수의 30%에 해당하는 23쪽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1학기는 총37쪽으로 대단원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중단원 ① 우리고장의 옛이야기 ②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이 지역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학기에는 4쪽에 해당하는 대단원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중단원 ①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이 비교적 짧게 구성 되어 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의 공간지각능력은 자기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고장의 주변을 탐색하며 고장의 모습을 조사하고 고장의 옛이야기를 통해 고장의 유래와 자연환경,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고장의 문화재의 가치를 깨달아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명에 얽힌 옛이야기로 역사에 쉽게 접근하도록 구성하였으며 자기 고장에 있는 문화재 종류를 알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재 분류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명에 따른 고장의 문화재를 소개하며 선사시대 생활모습과 오늘날의 생활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3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도③」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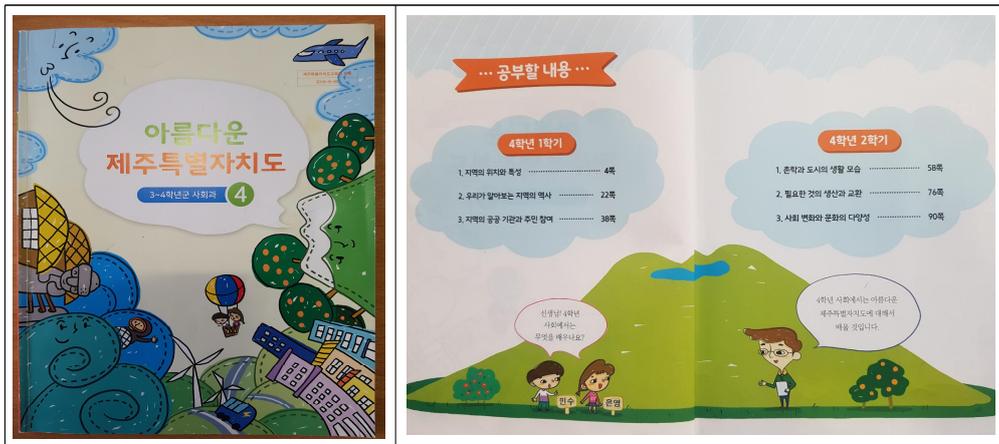
내용을 분석해보면 ① 재미있는 옛이야기를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역사에 대해 쉽게 접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성면에서 체계성 부족하고 이야기의 줄거리 요약이 미흡하였다. ② 고장의 문화유산을 찾아보며 보물, 사적,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분류하여 문화재 종류별 구성하였으나 시대적 흐름을 고려되지 않아 시대적 착오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문화재 소개가 너무 소략하고 문화재 QR코드를 넣어 호기심 유발은 좋은 방법이나 직접 활용적인 면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③ 해녀문화는 다른 종류에 비해 쪽수 분량을 늘여서 제주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로 소개한 것은 제주해녀의 가치를 알고 문화전승의 의미를 학습하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문화재에 비해 너무 많은 부분이 할당 되었다. ④ 고산리에서 우리나라 이른 신석기시대를 시작하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한국사 영역에도 나타나고 있음에도 고산리 유적지를 제외하고 용담동과 삼양동의 동시대의 선사유적지를 중첩하여 수록하였다. ⑤ 제주에 다량으로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은 초등학생들의 역사적 흥미를 유발에 유의미한 선사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으나 전혀 언급이 없었다. ⑥ 현대사인 4.3이야기는 초등과정에서는 심화된 주제이므로 4.3을 배경으로 쓴 동화책을 소개하여 쉬운 접근을 유도 하였으나 4.3유적지 사진자료도 함께 구성하여 실증적 사료를 언급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3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역사유적지 이름과 문화재 사진자료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초등3학년 지역화 보완교재 수록 문화재

교과서	단원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인물
3학년	우리고장과 관련된 옛이야기	김만덕묘비(사진)		김만덕
	지명과 자연환경	화북진성(지명), 삼사석(사진) 화북비석거리(지명), 향파두리 향몽유적지(지도), 삼성혈(사진) 해녀의 물웃과 물질도구(그림)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관덕정, 제주향교 대성전, 불탑사 오층석탑, 탐라순력도, 제주 용담동 유적, 물허벅, 제주 삼양동 유적, 환해장성, 방사탑, 남방야 (모두 사진) (*교재수록 순서에 따름)	망건장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모두사진)	

2. 초등4학년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4학년 사회교과서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을 주제로 학습한다.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3학년과정보다 공간의 범위가 고장에서 지역으로 공간영역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4학년 지역화 교재에서는 유적지를 답사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직접 현장답사를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습자 참여 수업이 강조되었다. 4학년 지역화보완교재 역사영역은 1학기에만 편성되고 2학기에는 일반 사회 영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지역화보완교재-제주특별자치도④

4학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통합교재로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학습 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지만 대체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오히려 4학년은 3학년과 달리 역사영역은 16쪽, 한 단원만 구성되어 교과서 전체의 약15%에 불과하다. 대단원은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이며 중단원은 없고, 소단원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4학년 과정에서는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하여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스스로 조사하고 역할극이나 뉴스로 소개 자료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① 3학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를 유·무형으로만 구분하였으며 3학년 교재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지 않았다. ② 3학년에 수록된 문화재와 중복 되지 않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소략하였고 유적지를 수록하여 현장답사 계획서 작성과 답사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등을 구성하였다. ③ 현장답사 전에 사전 지식을 알고 갈 때 답사가 효과가 크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한 문화재 사진 설명

이 답사할 때 도움자료가 되도록 설명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④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노력들을 설명하고 있다. ⑤ 초등과정의 역사교육의 주제는 주로 생활사와 인물사중심이다. 지역의 인물을 스스로 조사하여 역할극이나 뉴스로 소개하도록 하였다. 김만덕 외 제주의 인물들을 조사하여 교과서적으로 직접 제시하여 다양한 인물을 통한 동기부여는 유의미한 학습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학년 지역화 보완교재에 수록된 문화재를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초등4학년 지역화 보완교재 수록 문화재

	소단원	유형 문화재	무형문화재	역사적 인물
4학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고인돌광령석묘6호, 환해장성, 관덕정,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추사유배지, 불탑사오층석탑(그림과 사진) (*교재수록 순서에 따름	해녀문화 제주민요 (그림과 사진)	스스로 조사

다음은 3, 4학년군 지역화 보완교재의 역사영역에서 수록된 문화재를 양적 분석과 서술내용 분석의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³⁷⁾ 양적 분석방법은 사회과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이며 분석준거 기준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기준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서술내용 분석방법은 문화재를 서술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는 문화재 학습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각종 문화재에 대해 무엇을 다루고 학습하도록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추출해 낸 내용 요소인 문화재청(2000)의 문화재 해설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문화재 관련 서술내용분석의 준거를 설정하였다. ①어떤 문화재인지 설명하고 있으며 기능과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가(명칭, 용도, 기능, 재료 등) ②문화재와 관련된 시대 혹은 연도를 설명하고 있는가? ③문화재의 위치나 지역성을 밝히고 있는가? ④문화재에 관련 유래와 역사성을 밝히고 있는가? ⑤우수성과 가치를 밝히고 있는가? ⑥역사적 및 현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가? 로 설정하였다³⁸⁾

37) 최희정, 「초등학교 사회과교과서 문화재관련 내용의 분석과 재구성」,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2-13쪽에 걸쳐 분석한 방법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다.

38) 최희정, 앞의 논문, 2009.

<표 11> 3학년 지역화보완교재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시' 역사영역 단원서술 분석

학습주제	문화재 시대구분	서술내용	형태	쪽수	분석준거 번호
우리 고장의 모습	제주목 관아 -조선시대	.제주목 관아는 탐라국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주의 정치·행정·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곳으로 제주 고유의 역사적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설명, 사진	1학기1 9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삼성혈 (국가사적134)	삼성혈은 품(品)자형인 세계의 구멍에서 제주도 시조인 고·양·부씨 세 사람의 신인이 나왔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와서 삼성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입니다.	설명 사진	1학기 19쪽	① ④ ⑤ ⑤ ⑥ ⑦
	연복정 -조선시대	연복정은 제주에 온 사람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과 존경의 뜻을 가진 연복정에 와서 북쪽을 바라보며 그리움을 달래던 곳입니다.	설명 사진	1학기 19쪽	①④⑦
	제주향파두리 항몽유적지 (국가사적396) -고려시대	제주향파두리 항몽유적지는 몽골에 대항하여 최후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한 삼별초군의 유적지입니다.	설명 사진	1학기 19쪽	①②④ ⑦
우리 고장의 옛이야기	김만덕묘비 (도기념물 64) -조선시대	. '만덕로'라는 표지판이 보였다...김만덕이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 김만덕의 일화를 소개	사진/ 그 외 인 물과 관 련된 사 진소개	1학기2 8~31쪽	① ② ③ ④ ⑦
	화북 비석거리 (도기념물30) -조선시대	없음	언급	1학기 35쪽	①③
	삼사석 (도기념물4)	삼성설화 소개	지도, 사진	1학기 39쪽	①③④ ⑦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도민속문화재 10)	해녀이야기	그림	1학기 46~49 쪽	①③⑤ ⑥ ⑦
	화북진성	없음	지도	1학기	①③

	(도기념물56) -조선시대			35쪽	
우 리 고 장 의 이야기	4-3 이야기 -근현대시대	없음	4-3 관련 동 화 책 소개, QR 코드	1학기 50쪽	①
우 리 고 장 의 문화유산	관덕정 (국가보물322) -조선시대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의 하나이며 조선시대에 병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설명 사진 QR코드	1학기 51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주향교 대 성전 (국 가 보 물 1902) -조선시대	조선시대 제주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던 곳입니다.	설명 사진 QR 코드	1학기 52쪽	① ② ③ ④ ⑥ ⑦
	불탑사 오층석탑 (국 가 보 물 1187) -고려시대	고려후기에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처음에는 원당사에 세워졌다가 조선 중기에 원당사가 폐지되고 1950년대 이후 새로 지어진 불탑사에 있습니다.	설명 사진 QR 코드	1학기 52쪽	① ② ③ ④ ⑤ ⑥
	탐라순력도 (국 가 보 물 652-2) -조선시대	조선시대 제주목사였던 이형상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그림책입니다. 제주도 화공 김남길이 그렸고 18세기 초 제주도의 자연, 역사, 풍속 등이 기록되어 역사적, 문화적, 회화적 가치가 높습니다.	설명 사진 QR 코드	1학기 53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최익현 초상 (국 가 보 물 1510) -조선시대	없음	언급	1학기 53쪽	①
	제주 용담동 유적(국가사적 522) -선사시대	제주도 탐라초기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곳입니다. 토기류, 석기류 등이 발굴되었고 용담동식 대형 지석묘가 있습니다. /	설명, 사진, QR 코드	1학기 54쪽	① ② ③ ④ ⑥
	제주 삼양동	제주도의 청동기 후기 문화	설명,	1학기	① ② ③

유적(국가사적 416) -선사시대	를 알 수 있는 유적으로 토기류, 석기류, 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사진, QR 코드	54쪽	④⑥
환해장성 (도기념물49)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배를 타고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가며 성을 쌓았는데 이를 환해장성이라고 합니다.	설명, 사진,	1학기 54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방사탑 (도민속문화재 8)	방사탑은 불길한 징조가 보이는 곳에 마을 공동으로 돌을 쌓아 올려 마을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설명, 사진	1학기 54쪽	① ③ ④ ⑥ ⑦
남방아 (도민속문화재 5)	통나무를 파서 만들었으며 절굿공이로 곡식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빵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제주도에 서만 볼 수 있으며 돌로 만든 것은 돌방아라고 합니다.	설명, 사진	1학기 54쪽	① ③ ④ ⑥ ⑦
물허벅	우리고장은 바람이 세고 돌이 많습니다. 물을 머리에 이고 나를 경우 돌에 채이거나 바람에 쓰러질 수 있어 바구니에 허벅을 넣어 등에 지고 물을 운반했습니다.	설명, 사진	1학기 54쪽	① ③ ④ ⑥ ⑦
망건장 (국가무형66)	망건장은 말총을 가지고 망건을 짜는 일 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망건은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고 말총을 엮어 만든 머리띠로 망건의 재료는 말의 꼬리털이나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합니다. 망건을 짜는 기본적인 방법은 편자를 짜고 중간부위는 망으로 맨 위는 당을 당깁니다. 두상에 맞게 짜진 망건을 삶아서 고정합니다.	설명, 사진, QR코드	1학기 55쪽	① ② ④ ⑤⑥⑦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국가무형71)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입니다.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곳이며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설명, 사진, QR코드	1학기 55쪽	① ② ④ ⑤ ⑥ ⑦
	제주민요	멸치 후리는 노래	민요 가사, 제주어 해설	1학기 57쪽	① ③ ⑤ ⑥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사	탐라 문화축제	탐라문화제는 1962년부터 시작되었어. 세계무형문화유산을 비롯한 제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축제라고할 수 있어	사진, 설명, QR코드	1학기 58쪽	① ③ ④ ⑥
	제주 해녀축제	.해녀는 인류유형문화, 국가 중요어업유산,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제주해녀축제는 제주해녀를 알리고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주의 숨결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하나가 되어보는 축제입니다. . 제주해녀는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0월에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1학기 59쪽	① ③ ④ ⑥

※ 분석준거번호 : ①기능·목적(명칭, 용도, 기능, 재료) ②시대 혹은 연대 ③ 위치·지역성 ④유래·역사성 ⑤비교성 혹은 외형적 특성 ⑥우수성과 가치성 ⑦역사적·현재적의의

<표 12> 4학년 지역화보완교재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역사영역 단원서술 분석

학습주제	문화재	서술내용	형태	쪽수	분석 준거 번호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	고인돌 광령석묘6호 (도지정기념물2- 21) -선사시대	우리지역에는 140기 정도의 고인 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옛날 우 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의 무덤입 니다. /사진	사진, 설명	1학기 25쪽	①② ③④ ⑦
	환해장성 (도지정기념물 49-9) -고려시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지역을 침입한 적들을 막기 위해 돌을 쌓 아 만든 성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현재 10여 곳에 남아 있습니다. / 사진	사진, 설명	1학기 25쪽	① ③ ④⑤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국가사적396) -고려시대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항몽유적지 는 고려시대 몽골과 삼별초가 최 후까지 싸운 곳입니다. 지방기념 물28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 니다. *삼별초는 고려시대 조직입니다.	사진, 설명	1학기 26쪽,2 8~ 31쪽	① ② ③ ④ ⑦
	추사유배지 (국가사적487) -조선시대	추사유배지는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를 와서 9년동안 지낸 곳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있습니 다. 김정희는 이곳에서 추사체라 는 독특한 글씨체와 그림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추사'는 김정 희의 호입니다. /사진	사진, 설명		① ② ③ ④ ⑦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국가보 물1187) -고려시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은 제주시 삼양1동에 있는 보물로 지정된 유 물입니다.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 아 있는 고려시대 석탑입니다. 우 리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무 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는 약 4m정도에 이릅니다.	사진, 설명		① ② ③ ④ ⑤⑥
	관덕정 (국가보물322) -조선시대	관덕정은 활쏘기가 포함된 군사훈 련을 목적으로 조선시대에 지방의 관아마다 세워졌습니다. 제주의 관덕정은...	사진, 설명	1학기 27쪽	
	해녀문화	해녀는 바닷속으로 들어가 전복이 나 미역등을 채취하는 여성들을 말합니다. 해녀는 전 세계에서 제	사진, 설명	1학기 27쪽, 32쪽	① ② ④ ⑤ ⑥⑦

		주도와 올릉도, 일본 일부지역에만 있습니다. 2016년 '제주해녀문화'란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사진			
	제주민요		사진, 설명	1학기 27쪽	①③ ⑤⑥ ⑦
우리지역의 역사 인물		.우리지역의 자랑스런 역사적 인물을 조사... . 실제 인물은 언급하지 않음		34~ 35쪽	

현재 사용하는 지역화 교재의 구성은 5·6학년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사 영역을 배우기 전단계의 계열화에 의해 자신의 생활주변 즉, 자기고장에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때 시대적 배경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시대적 체계성이 없었다. 따라서 유물 하나하나의 시대를 거론하기보다는 유물을 시대 순으로 교재에 수록하면 자연스럽게 발달순서나, 변천과정을 이해하도록 구성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지역화 보완교재에서는 단순히 지역의 문화재가 위치하는 장소, 문화재종류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보물, 사적, 민속 문화재 등으로 종류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로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특징과 가치적인 측면의 언급이 없었다. 또한 학교에서 지역화교재를 사용하는 지역사를 교육을 할 때 교육적 환경에서도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① 사회과교과 수업시수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의 사회과 수업이 주 2~3회로³⁹⁾ 지역화 보완교재 시수는 따로 없으며 사회과 시수 중에서 교사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와 연계하여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며 지역화 학습의 목적에 도달해 낼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② 초등교사의 역사영역에 대한 이해부족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일부 예체능과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교과전반적인 수업을 감당해야 하므로 개별수업연구와 교사지도서를 참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학생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확장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③ 현재 지역사 보완교재는 지역 문화재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문화재를 활용하는 다양한 지도방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수업의 구성과 수업자료의 제시는 학습자의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⁴⁰⁾ 초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39) 초등3~4학년 사회/도덕은 기준수업시수가 272시간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과정의 운영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교육과정의 자율화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교육부, 「2009 개정교육과정」 총론, 2015).

40) 임규혁·임용, 「교육심리학」, 『학지사』, 2017, 73쪽.

서는 추상적인 개념보다 교과서에 제시된 유물을 보고 만지는 직접적 관찰과 탐구 활동이 필요하며 체험적 활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단순한 경험들이 효과적이다.

지역사 교육은 초등 3·4학년군에서 정규교과 과정으로는 모두 마무리가 된다. 초·중·고등 단계에 따른 지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교과과정의 구성상 불가능한 현실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초등과정에서 모두 마무리되는 지역사 교육을 위해 지역사 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안이 대책되어야 한다. 지역화 교육은 변화에 따라 지역 구성원으로서 평생 학습의 주제이지만 지역사 교육은 초등과정 이후는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아니라 '선택의 교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옛날과 오늘날의 시간적 개념과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적 개념이 습득되는 3·4학년 시기의 정규교과 과정의 지역사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3. 제주시내 초등학생들의 제주역사에 대한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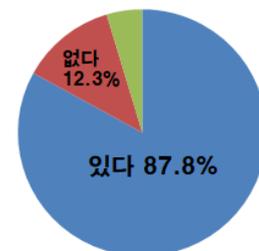
먼저 제주지역 초등학생들의 제주 지역사와 지역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값은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제주역사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정도는 한국사에 대비하였을 때보다 비교적 낮은 결과를 나타내며, 범위를 좁혀 본 제주 문화재에 대한 이해정도에도 일정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의 수업준비 부족이나 역사 이해정도를 기반으로 하여도 제주의 문화재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우려할 정도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적 간단한 설문을 준비하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제주문화재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초등학생은 제주도내 방과 후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⁴¹⁾

설문1> 제주역사를 공부해 본적이 있나요?

있다	없다	무응답
87.8%	12.3%	4.7%



전체 응답한 학생의 87.8%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주역사에 대해 배웠다고 답했다. 60%에 해당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박물관에서 제주역사를 공부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22.4% 되었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3-1,우리가 알아보는 고장이야기'와 '4-1,우리가 알

41) 제주시내 동광초등, 노형초등, 인화초등, 아라초등, 대정초등 3~5학년 2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보는 지역의 역사에 따른 제주지역화 보완교재가 있어 지역화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정규 사회교과서와 병행해가는 보완교재이므로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을 익히며 지역사를 배우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제주 지역사는 3·4학년 사회교과서의 한 학기당 세 단원 중 한 단원이 사실상 역사와 관련된 단원이다. 이러한 내용과 시간의 분량으로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를 총괄적으로 학습하기에는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되었다.

설문2> 제주역사에 얼마나 관심과 흥미가 있나요

재미있을 것 같다	그저 그렇다	재미없다
55.6%	34.5%	9.9%

제주 역사에 관심은 3학년보다는 4학년이 관심과 흥미가 높게 나왔다. 지역화교재를 1년을 배운 결과로 추측 할 수 있으며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관심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미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설문3> 제주도에 있는 문화재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모른다(무응답)	1~2개	2~3개	3개 이상
32%	41.5%	18.9%	7.6%
항파두리성(삼별초 항쟁지), 관덕정, 고인돌, 4·3기념관, 제주목 관아, 추사기념관, 제주향교, 김만덕 기념관, 돌담, 한라산, 해녀, 오름, 돌하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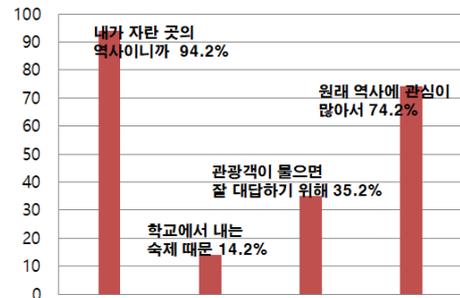


질문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초등과정에서 지역 문화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소수였다. 아예 모르거나 1~2개 정도를 알고 있는 경우가 73.5%였다. 지역화 보완교재를 통하여 지역사 교육을 받는 대상임에도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도 38.7%에 해당하였다. 가장 많이 응답 한 것이 돌하르방이며 관덕정과 항파두리, 해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결과를 볼 때 지역 문화재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재와 지역 환경적 요소들을 구분하지 않고 대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접하는 한라산, 오름, 해녀, 돌하르방, 감귤 등의 제주 문화자원에 대한 답변이 많았다.

설문4> 제주역사를 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중복 답변 가능)

내가 자란 곳의 역사니까	학교에서 내는 숙제 때문	관광객이 물으면 잘 대답하기 위해	원래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94%	14.2%	35.2%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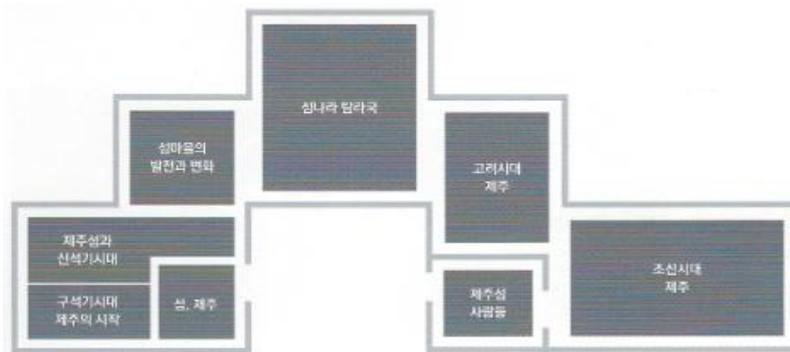
위 설문의 답변의 결과에 고무적인 것은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삶의 터전에 대한 강한 애정을 느끼고 지역사 교육이 지역 구성원의 정체성 함양에 많은 영향력이 미치는 사실을 알게 하였다. '관광객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은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내포하는 답변으로 이해가 되며,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는 응답자가 방과 후 학교 역사프로그램 수강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역사수강생이 아닐 경우는 이보다 더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94%에 해당하는 학생이 '내가 자란 곳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 앞의 조사된 설문을 통하여 지역사교육의 중요성과 지역문화재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4학년 시기의 지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 역사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대체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여 '학교 밖의 교실'로 박물관 문화재 활용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지역화 보완교재를 분석하면서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제주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지닌 다양한 문화재들이 수록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제주의 선사유물에 대해 언급이 미흡한 것을 보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유가 되었다. 또한 초등 시기는 생활사 중심으로 역사교육 시작되므로 흥미와 동기 부여가 쉬운 문화재 활용 수업이 적절한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박물관의 지역문화재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적절한 학교연계로 효율적 운영을 계획하려는 노력은 역사 교육의 확장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Ⅳ. 국립제주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 교육 방안

국립제주박물관은 2001년 6월 개관하여 2017년 전면적으로 전시시설과 내용을 개편하여 새롭게 전시환경을 바꾸었으며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도 교육대상과 종류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주의 선사유물들이 대부분 이곳에 소장되어 있으며, 교육적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사문화재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국립제주박물관에는 제주의 선사 고고유물이 다량으로 소장되어 있다. 상설 전시실의 관람 동선에 따라 제주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유물을 구조적으로 배치하여 시대와 유물의 연관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동 경로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대적 흐름을 익히게 되어 유물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고려하여 시대별, 종류별, 단계별로 지역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국립제주박물관 상설전시실 보기42)

① 구석기시대 제주의 시작

제주는 18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전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 제주에 이동하여 살았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주로 동굴이나 바위그늘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각종 뿔석기와 정교하게 만든 돌날, 쯤돌날 등을 제작하여 생활도구로 사용하였다.

② 제주 섬과 신석기시대

1만여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면서 제주는 육지와 분리되어 '섬'이 되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식생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새로운 신석기문화가 지속적으로 제주에 전해졌고, 제주의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42)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도록, 2017, 11쪽.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냥과 채집, 어로 활동을 하며 살았다.

③ 섬마을의 발전과 변화

제주의 청동기문화는 한반도 중남부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하였다. 제주시 삼양동과 용담동에서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큰 마을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민무늬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했다. 조개껍질을 이용하여 장신구를 만들었으며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를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특정 계층은 청동기와 같은 위세품을 소유하면서 섬마을은 점차 위계질서가 있는 큰 마을로 변모하였다.

④ 섬나라 탐라국

한반도에서 고구려·백제·신라·가야가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시기에 제주에도 강력한 지배계층이 있었다. 섬 전체에 대규모 마을이 급성장 했으며 탐라 후기에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백제·신라·왜·당 등 주변 국가와 교류하며 국제적인 역량을 높이는 한편 활발한 해상활동을 전개하였다.

⑤ 고려시대 제주

탐라국은 고려의 행정구역인 '탐라군'이 되면서 '나라'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 탐라는 고려의 영향으로 청자를 수입하고 불교문화를 받아들였다. 고려 말기 대몽항쟁 시기에는 몽골군의 침입에 대항하던 삼별초에 마지막 거점이었으나, 삼별초가 여원 연합군에게 패하면서 제주는 중국 원나라 탐라총관부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⑥ 조선시대 제주

조선시대 제주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중앙집권적인 왕도정치를 지향한 조선의 지방통치제도에 의해 운영되었다. 사람들은 거친 풍토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자연재해, 끊임없는 왜구의 침입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다. 또한 제주에 부임한 관리, 사회와 당쟁 등으로 유배 온 학자나 정치인, 표류로 인해 바깥세상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에게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⑦ 제주섬 사람들

제주도는 '도道'이자 '도島'이다. 용암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은 사람들이 살기에 척박하고 험거운 생존의 공간이었다. 반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는 열린 섬으로 여러 문화가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고립된 섬으로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제주인은 소박하지만 강건한 그들만의 문화를 싹틔워 나갔다.

한편, 국립 제주 박물관의 소장 문화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국립제주박물관 문화재 소장품 현황⁴³⁾

구분	건	점	구분	건	점
금속	937	1,005	골각 패갑	583	591
토제	4,400	22,752	지	2,373	2,390
도자기	2,056	2,107	피모	74	86
석	5,525	6,143	사직	1,707	1,732
유리보석	262	326	종자	4	4
초제	51	51	기타	88	88
나무	395	398	합계	18,455	37,673

<표 14> 상설전시품 현황⁴⁴⁾

전시실	전시품 수량		복제품 수량	
	건	점	건	점
상설전시실	701	900	31	32
야외전시장	26	68	3	3
	727	968	34	35

전시박물관교육은 오감을 통한 체험학습과 전시를 통한 교육, 실물을 통한 직관 교육, 연령과 성별, 접근성, 지적수준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비정규 교육,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학습, 평생 동안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교육, 비영리의 사회교육 등의 다양한 목적과 특성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⁴⁵⁾ 특히 박물관 교육은 학교교육이 제공하는 교과서에서 줄 수 없는 실제 자료와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학교교육의 파트너이자 대안교육기관이고 평생학습기관으로서도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⁴⁶⁾ 학교와 연계한 박물관교육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⁴⁷⁾

첫째, 박물관의 주요 관람객인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을 평생학습의 공간으로 활용

43) 국립제주박물관 연보, 2018.

44) 국립제주박물관 연보, 2018.

45) 손연주, 「초등학교와 연계한 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쪽.

46) 한지윤, 2007, 앞의 논문.

47) 손연주, 2010, 위의 논문.

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길러 줄 수 있다. 둘째, 박물관에서는 사진이나 인터넷의 영상물이 아닌 실물자료를 통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셋째, 교과통합학습 및 공간연계 학습이 가능하다. 넷째, 공교육기관과 사회문화기관의 공조체계를 만들어 문화교육의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학교교육과 연계한 박물관교육은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따라서 초등교과 과정의 지역화 보완교재에 따른 지역문화재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국립제주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립제주 박물관의 문화재 현황과 전시상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초등 3·4학년 지역화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2019년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박물관 교육은 분야별로는 ①박물관 소장유물과 연계된 교육과 ②관람객의 지적 충족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③지역 전통문화전승에 관련 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대상별로는 ①어린이, 가족동반가족, ②학교·학급연계 ③청소년 ④성인 및 중장년, ⑤일반 관람객 대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야별에서는 박물관 소장유물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과 대상별에서는 어린이 대상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특히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 국립제주박물관에서 2019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표 15> 2019년 국립제주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내용
01 어린이/ 가족	박물관 호기심 천국 - 안녕 그림자야!	그림자의 원리 이해 체험활동, 장한철의 표해록을 주제로 개발한 그림자연극 <우르르쿵쿵 바다탐험>관람, 그림자 인형 만들기 등 ■대상 : 유치원 단체 (15명 ~ 40명 이내)
	제11기 제주어린이박물관학교 “도전 역사 키즈 크리에이터”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의 맞는 콘텐츠 기획-제작-채널 만들기 ■대상 : 초등 4~6학년 (30명)
	할망·하르방 지혜의 샘 “글쎄 들어보라”	지역 사회의 문화 서장을 주도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들어보는 제주 문화 이야기 (제주의 차례상을 빛내는 조연 - 제주 떡 이야기 등 4개 주제) ■대상 : 어린이 동반 가족 (15가족)
	여름방학프로그램운영	옛 지도로 보는 제주(대동여지도)-제주의 옛지도<대동여

	“여름, 기억의 온도”	지도 중 <제주도>를 활용한 기억의 지도 그리기 ■ 대상 : 초등학생동반 가족
	박물관 탐험대	박물관 교구재를 활용한 상설전시실 가족 투어 운영 ※활동지, 가이드 북, 체험 교구재 세트 제공 - 1가족 당 1개의 꾸러미 제공 ■ 대상 : 초등학생 동반 가족
02 학교 연계	학교, 박물관을 찾다	박물관 현장학습과 연계한 상설전시실 문화재 탐구 활동 [학급단체 참여] 상설전시실 문화재 탐구+문화재 무늬를 활용한 드림캐처 만들기 [학년단체 참여] 상설전시실 문화재 탐구 ■ 대상 : 초등학교 단체
	보급형 교구상자 대여 사업	<우리놀이상자>, <탁본체험상자>, <목판체험상자>, <제주해녀상자> 등 4종의 교구재 학교 대상 대여 사업 ■ 대상 : 초등학교 단체
상설	체험관 <어린이올레> 운영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상설 체험공간 운영 ■ 대상 : 관람객
	상설 <체험코너> 운영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상설전시실 연계 체험공간 운영 ■ 대상 : 관람객

1) 체험관 <어린이 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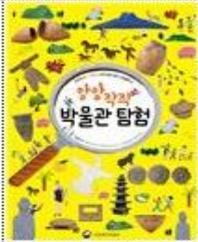
체험관 <어린이 올레>는 어린이를 동반한 방문자 자율체험관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디지털 영상과 게임, 놀이, 체험적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유아기의 지역화교육 장소로 매우 활용도 높게 구성되었다. 제주 토기, 신화, 설화, 해녀, 제주 말, 탐라순력도, 제주돌 등 다양한 지역 문화적 소재를 활용하여 흥미와 접근성이 쉽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4> 어린이 올레 전시관 전경

2) 학교, 박물관을 찾다

초등학생들의 학교와 학년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박물관에서 제공되는 활동지를 가지고 모듬이나, 스스로 전시관의 문화재를 탐색하며 활동지를 완성해가는 방법이다. '학교, 박물관을 찾다'는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원이 방문할 때 박물관의 소장품을 알리고 유물을 찾아 감상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단체 대상으로 효과적이므로 각 박물관마다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저학년들에게는 "앙앙작작 박물관 탐험", 고학년은 "들썩들썩 박물관 탐험"이라는 활동지를 이용하여 붙임 딱지를 활용하여 전시실의 대표문화재를 탐색하게 된다. 학교단체 대상으로 박물관 활용수업으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며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다. 학교, '박물관을 찾다'와 같은 학생단체 관람일 때에 교사나 강사의 지도 없이 활동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면 자칫 전시유물을 눈으로 확인 것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교육과 해설사와 교사의 역할을 분담하여 학습자가 즐겁게 탐구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박물관 프로그램은 학교나 교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박물관과 학교와 연계가 더욱 밀접해야 될 것으로 본다.

〈학년단체〉		교수학습 활동	
전개과정		1 박물관 관련분야 [직업군] 살펴보기 2 박물관 소개, 활동지 활용법, 관람주의 사항 안내	
도입(30)			
		저학년(1~3학년)	고학년(4~6학년)
전개I (50)		앙앙작작 박물관 탐험 : 스스로 활동지(초등1~3학년) 활용한 문화재 탐색 	들썩들썩, 박물관 탐험 : 스스로 활동지(초등4~6학년) 활용한 문화재 탐색 
전개II (30)		도르라 박물관(공동) : 활동지를 활용한 야외 전시장 문화재 탐색 ※ 우천시 상설전시장 활동 강화 	
마무리(10)		상설전시실 및 야외전시장 활동 마무리	

<그림 5> 학교, 박물관을 찾다 활동지

3) 보급형 교구 상자 대여

초등학생의 학교대상 프로그램으로써 <우리놀이상자>, <탁본체험상자>, <목판 체험상자>, <제주해녀상자> 4가지의 교구재를 초등학교에 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곽지에 있는 학교와 박물관 방문학습이 어려울 때 박물관에서 대여하여 학급별로

구분	내용
우리놀이상자	<승경도놀이> 등 5종
제주해녀상자	<물질도구> 등 6종
탁본체험상자	<탐라순력도 성산관일> 등 5종
목판체험상자 I	<대동여지도 중 제주도> 등 6종
목판체험상자 II	<훈민정음 언해본 집자> 등 8종



<그림 6> 교구상자 목록 및 해녀상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교사들로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교실에서 새로운 교구를 활용한 체험수업으로서 흥미와 이해도를 높이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제주해녀 상자에는 제주해녀역사, 관련전설, 해녀 옷 및, 도구, 해녀들의 항일 운동사까지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어 제주지역화 주제 수업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박물관 탐험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체험꾸러미 가방을 대여하여 스스로 박물관 전시실을 탐험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문화재를 관찰하고 탐구하게 된다. 전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를 활용하고 체험활동을 동반한 프로그램으로써 지역문화재 학습의 효과가 크다. 관람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문화재를 관찰하고 탐색하여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사고력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7> 박물관탐험대 활동지

5) 특별연계프로그램 : {노인성 관측답사} - 별 보러 가자

<제주를 비추는 장수의 별, 노인성>과 연계한 노인성 관측답사와 연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이다. “노인성은 예로부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별이기도 합니다.” 특별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롭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연1회 3개월 정도 운영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이지만 다양한 주제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8> 별 보러 가자! 활동지

6) 할망·하르방 지혜의 샘 “근건 들어보라”

초등대상의 할망·하르방 지혜의샘 “근건 들어보라”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문화 성장을 주도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들어보는 제주 문화이야기로서 이야기를 들은 후 제주떡 만들기, 해녀밥상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생활 문화를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지역화교육으로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2019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할망·하르방 지혜의 샘

‘근건 들어보라’

— 이야기할머니 들이오기야

가파도 해녀 할머니가 들려주는 “해녀밥상”

10월 26일(토) 14:00~17:00/세미나실

구분	일정	프로그램	강사
근건 들어보라 (이야기 할머니 들이오기야)	4월 27일(토) 14:00~17:00	제주의 자태상을 빛내는 조연 “제주의 떡 이야기”	고정순 (제주왕토음식연구소장) 외
	6월 22일(토) 14:00~17:00	성읍리 할머니가 들려주는 “등골 등골 오매기떡”	성읍리 강경순 (오매기떡 기능보유자) 외
	8월 24일(토) 14:00~17:00	가족의 끈을 이어주는 음식, “매일죽매기”	강사 미정
	10월 26일(토) 14:00~17:00	가파도 해녀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개미역국”	가파도 해녀 김영남 외

★ 1가족(직계가족 4~5인 기준) 당 1세트의 체험도구가 제공됩니다.
★ 원활한 교육준비를 위하여 교육예약시 메모란에 정확한 인원 수 기재 부탁드립니다.

국립제주박물관

<그림 9> 할망·하르방 지혜의 샘 ‘근건 들어보라’ 활동지

대체적으로 국립제주 박물관에서는 다른 국립박물관에 비교하여 지역사회교육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도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편이었다. 그러나 박물관이 지역사회교육의 직접 대상인 초등 3·4학년에만 맞추어 프로그램으로 편성될 수만 없기에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박물관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사 교육 방안

지역사 활용 역사교육 지도방법은 주제별 접근방법과 분산적 접근 방법⁴⁸⁾이 있다. 주제별 접근방법이란 지역사 교재를 하나의 주제로 내세워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를 민족사의 발전 과정 속에서 바르게 파악하는 한편 지역사의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역사적 태도와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고 관련 지역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⁴⁹⁾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탐구하며 생동감 있는 수업이 되지만 정규교과시간에 2~3시간 소요할 수 있는 여건과 자료 준비 등으로 사실상 학교정규 수업의 지도방법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주제중심의 역사학습에서는 특정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는 추상적인 역사개념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적지를 답사하거나 유물모형 만들기, 유물 그리기 및 보드게임 등을 통하여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효과적이다. 특히 주제별 접근 방법을 활용한 문화재 모형 만들기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지역문화재를 경험하며 촉각적인 상상력을 불러 일으켜 초등과정에서 활용하기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유물을 조작하고 탐구하는 수업은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나 역사의식 발달단계에 따라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중간학년 시기의 아동들뿐만 아니라 중 고등학생과 성인 대상의 역사 학습에도 효과 높은 수업방법⁵⁰⁾이라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학습주제는 2019년 제주지역 3·4학년 지역화보완교재에 따른 국립제주박물관 유물과 연계하여 학습 주제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교육자 주체에 따라 추구하는 목표와 여건과 계획, 참여하는 학생의 관심도, 교과진행, 교사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순서는 한국사 시대 흐름을 기준하였다. 교과서 수록 순서는 현재 유물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현상의 역사적 발생 순서라는 역사 계열성의 원칙이 고려되지 않았다.

48) 분산적 방법은 연간지독계획에 따라 통사학습 과정에서 본시학습 내용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 자료를 활용하고, 계속 본시수업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한 지역사 자료의 활용은 교재의 평면적 내용을 보충·심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지역사 자료가 갖는 교육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는 없다. 송춘영,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14합, 1990, 24~29쪽.

49) 정선영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2, 133쪽.

50) 권영오, 「유물자료를 활용한 한국사 교실 수업」, 『역사와 세계』 39, 2011, 165쪽.

<표 16> 초등 3, 4학년 지역화교재에 따른 박물관유물과 연계한 학습주제

"교과서를 탈출한 우리 문화재와 놀자"/ 제주역사 속으로 "고고go 썩~!!"					
차시	학습단원	박물관 관련문화재	활동내용	관련 성취기준	한국사 관련시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 3-2학기,97쪽 	고산리 식토기 덧무늬 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선사시대 유물분류하기 ●제주의 선사시대 유적의 특징 찾기 	.제주도의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지들을 알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 비교할 수 있다.	신석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 3-2학기,98쪽 	삼양동 선사유적지 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의 삼양동선사유적지의 유물을 중심으로 당시 생활모습 추론하기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오늘날의 생활모습 비교하기 	.옛날 사람들의 생활도구나 주거형태를 알아보고, 오늘날의 생활모습과 비교하여 그 변화상을 탐색한다.	신석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 3-2학기,96쪽 ■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 4-1학기,25쪽 	독무덤, 제주 고인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 사람들의 무덤에 대해 알아보기 ● 제주지역에서 발견되는 고인돌과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차이점 살펴보기 	.옛날 우리지역에 고인돌 분포 지도를 보고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해 추론하고 한반도에 나타나는 고인돌 형식과 제주 고인돌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청동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 3-2학기,96쪽 	전복껍질칼, 반달돌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복 돌칼의 쓰임새를 알아보기 ●제주의 농사기구를 살펴보기 	옛날 사람들의 생활도구를 알아보고 전복돌칼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것과 제주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제주만의 독특한 도구임을 이해하고 도구의 다양성을 탐구한다.	청동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옛이야기 ■ 3-1학기,19,39쪽 	삼성혈/삼사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라개국신화에서 마을이름 찾아보기 ● 지역의 옛날모습과 현재모습을 비교하여 동네의 	제주신화를 이해하고 신화에 나타난 고장의 유래와 특징을 살펴보고 주변의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 속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	원삼국

			변화상을 탐색하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 ■ 3-1학기, 55쪽 ■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 4-1학기, 25쪽 	온평리 환해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돌담들을 알아보기 ● 환해장성의 역할을 알아보기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들을 말해보고 오늘날 주변에 제주 돌을 활용한 방법들을 찾아본다.	고려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 3-1학기, 52쪽 ■ 지역의 문화유산 ■ 4-1학기, 26쪽 	불탑사 5층 석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탑사의 유래를 알아보기 ● 불탑사 5층석탑의 특징 찾아보기 	제주에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탑의 모양을 설명하고 탑의 유래를 설명한다.	고려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 4-1학기, 27쪽, 29~31쪽 	항몽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의 항쟁 과정 알아보기 ● 몽골이 제주에 영향을 준 문화 살펴보기 ● 항몽유적지에 얽힌 이야기를 읽고 삼별초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생각 나누기 	항파두성이 있는 지역의 특징과 삼별초에 대해 알아보고 제주에 전해오는 몽골 문화를 찾아 탐색해본다.	고려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 3-1학기, 53쪽 ■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 4-1학기, 7쪽 	탐라 순력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 순력도의 그림 내용들을 알아보기 ● 그림에 나타난 제주사람들의 생활을 탐색하기 	탐라 순력도를 통해 그 당시 제주의 환경과 생활의 특징들을 탐색할 수 있다.	조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 3-1학기, 19, 51쪽 ■ 우리지역의 문화유산 ■ 4-1학기, 27쪽 	제주목관아/관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목관아와 관덕정에서 하는 일 알아보기 ● 제주지도를 활용하여 옛날 제주도의 행정지역 찾아보기 	제주도의 정치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으로 지금의 주변 모습과 달라진 변화를 설명한다.	조선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장의 옛이야기 ■ 3-1학기, 28~31쪽 	은광연세 (김만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만덕의 관련된 제주의 유적지, 문화 등을 알아보기 ● 조선시대 여성의 	우리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삶을 알아보고 지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조선

			역할과 김만덕의 삶 비교하기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에 온 사람 ■4-1학기,26쪽 	추사 김정희/추사 유배지(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희는 어떤 인물인지 찾아보기 ● 제주에 유배 온 또 다른 인물들을 알아보기 	유배문화를 알아보고 제주의 학문과 문화발달에 영향을 끼친 점들을 설명한다.	조선

앞의 학습 주제를 중심으로 계획한 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박물관에서 직접 문화재 관찰하면서 진행 할 수 있는 경우와 방과후 학교, 특기적성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박물관' 수업 형태로 이동수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3·4학년 지역화 보완교재의 단원 구성과 수록된 문화재를 참고하여 지역사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학습주제를 설정하였다. 교육시간은 박물관에서는 120분, 이외의 장소에서는 80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지역화보완교재를 사용하는 3·4학년 대상으로 국립제주 박물관의 전시실에 따른 학교, 학급별 연계수업과 박물관에서 직접 교육이 어려울 때,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안을 제시를 하였다. 교수·학습안은 제주문화재 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쉽고 중요하고 고고학적 유물이 출토된 고산리 유적지를 비롯한 '제주 선사시대'유물과 제주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삼별초와 항몽유적지' 및 조선시대 제주를 확인할 수 있는 '탐라 순력도'를 주제로 하여 계획하였다.

1) 수업예시 - 선사시대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의 규모를 볼 때 제주의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분량이 상당히 많다. 제주의 선사유물과 유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연안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긴 하지만 선사시대의 역사를 특히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전체역사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의미한다. 반면에 지역화보완교재에는 선사시대 문화재 수록은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지역화보완교재의 지역사 영역에서 제주의 선사시대를 간과 한 것은 제주역사의 출발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제주의 선사시대의 중요성을 가지고 선사시대 유물을 가지고 수업안을 제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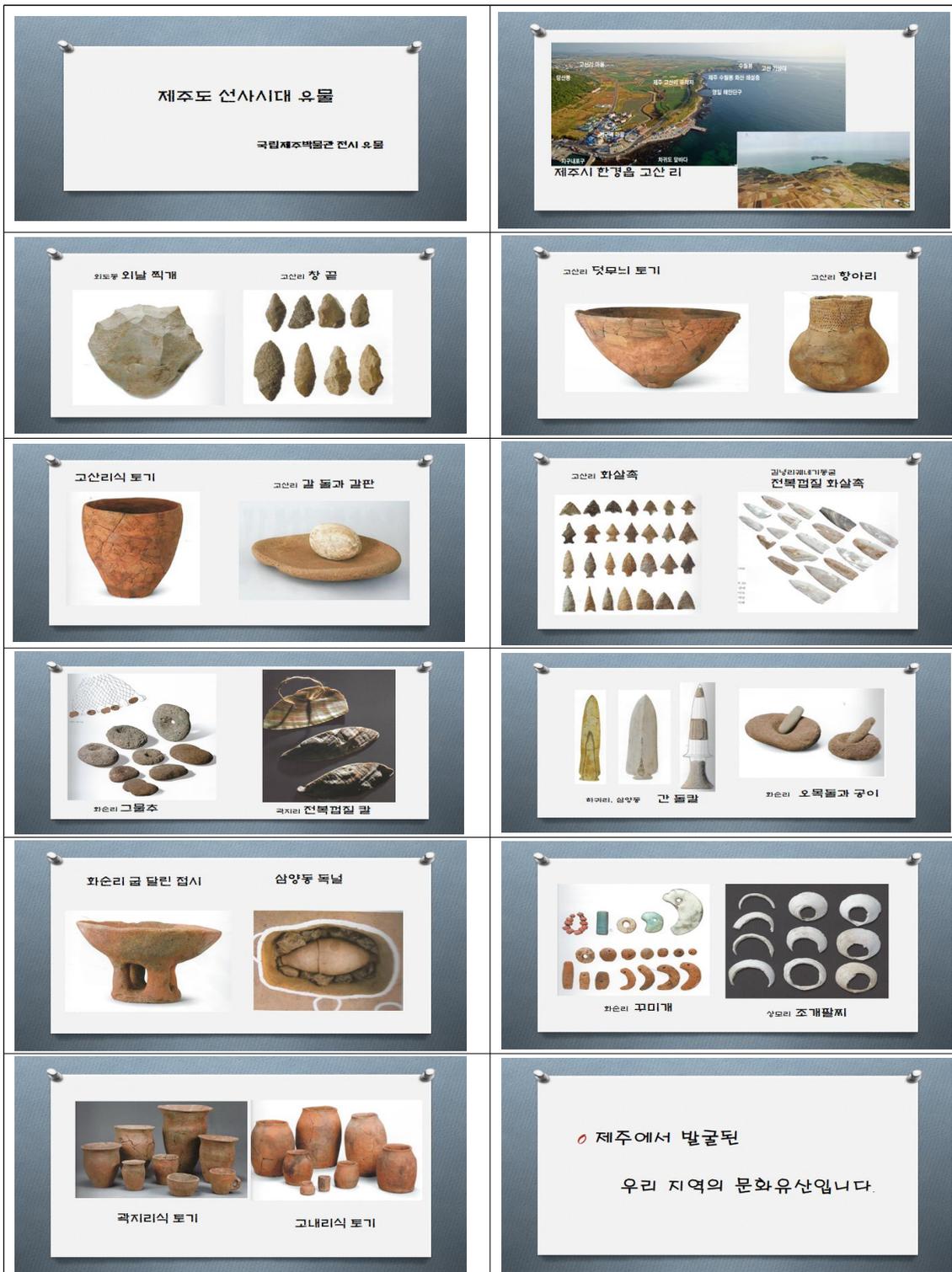
<표 17> 박물관 문화재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①

프로그램명	제주역사 2古2古 썩~!! -제주의 선사문화재들 모여라!-		대상	(학급단체) 초등3~5학년		
학습주제	교과서와 연계한 지역 문화재 탐구학습					
학습목표	.박물관 전시실 '구석기시대 제주의 시작~조선시대 제주' 전시실의 대표적인 문화재 관찰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여 제주의 문화재를 알 수 있다. .문화재의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화재를 탐구하므로 역사적 상상력과 사고력 진작을 알 수 있다.					
관련교과	<3학년>	3-1	1. 우리 고장의 모습(대단원 전체)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이야기(대단원 전체)			
		3-2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대단원 전체)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대단원 전체)			
	<4학년>	4-1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대단원 전체)			
	<5학년>	5-2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대단원 전체)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대단원 전체)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활용자료
도입	동기 부여	. 박물관이 궁금해요 . 문화재 관람은 어떻게 할까요?			20	PPT, 영상
전개	활동 1	문화재 관찰	* 모둠별로 나누어 서로 돌아가며 활동지를 정리하게 한다 활동지를 마무리 한 후 모둠별로 체험을 하게한다.		50	활동지
	활동 2	문화재 체험	* 동영상 '제주도 고산리, 1만년의 비밀'을 보고 흥미로운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대상과 여건에 따라 선택 체험 * 모둠별 문화재 관찰 하면서 제주선사시대 최고의 문화재 선정 * <홍보물 제작> 제주 문화재 컨테스트를 통해 선정된 문화재 자랑 홍보물 만들기 * <나는야 박물관 꼬마 도슨트!> 박물관 문화재를 선정하여 문화재 이해를 돕기 위한 도슨트 역할 해보기		40	체험재료
정리	학습 정리	활동지 체크/ 학생 및 교사 설문			10	설문지

<표 18> '찾아가는 박물관' 문화재 활용 예시①

주제	1만 년 전, 고산리의 비밀을 풀어라!!	대상	방과후 활동 초등3~5학년
학습목표	- 제주도의 선사시대의 유적지 유물들을 알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산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알아보기 - 우리나라에서 일찍 신석기가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유 추론하기 -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들을 상상하며 오늘날의 생활모습과 비교하기 - 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알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기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동영상 '제주도 고산리, 1만년의 비밀'을 보고 흥미로운 점을 찾아보기 - 고산리 출토 문화재 모형 보여주기 -수업과정 안 내하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자료 ■ 문화재 모형
전개	<p>(학습) 제주의 선사시대 유물을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선사시대 유물 탐구해 보자 - 주어진 유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쓰임새를 발표해보자 - 유물의 쓰임새와 오늘날 물건과 비교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p>(활동1) “진품명품”제주 선사시대 최고문화재!! (아름다움, 활용도, 제작난이도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유물선호도표를 만들어 뽑은 이유와 함께 발표하기(모형, 활용도, 제작난이도, 제주다움, 창의적) - 소중한 지역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는 방법들을 발표하기 - 새롭게 알게 된 점, 재미있었던 점 이야기하기 <p>(활동2) 비주얼 씩킹(Visual Thinking) 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사진을 활용하여 선사시대 생활 추측하기 	40	<p>PPT/유물카드 점수표</p> <p>*여건에 따라 활동수를 줄여 서할 수 있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정리(학습 활동지) - 다음차시 안내 - 과제안내 	20	

② PPT 자료 예51)



<그림 10> 박물관수업 예시 PPT 자료

51) 유물사진과 유물카드를 국립제주박물관 전시실 '구석기시대 제주시작'부터 '섬나라 탐라국'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를 박물관도록을 활용하여 사진자료로 이용하였다.

③ 유물카드 예



<그림 11> 박물관 수업예시 유물카드자료

<표 19> 유물 컨테스트 표 예시

유물이름/기준	유물 모양	유물 활용도	제작 난이도	제주다움	지혜(창의적)
외날개 짝개					
고산리 창끝					
고산리 덧무늬토기					
고산리 항아리					
고산리식 토기					
고산리 갈돌과 갈판					
고산리 화살촉					
전복껍질 화살 축					
화순리 굽달린 접시					
삼양동 독널					
전복껍질 칼					
조개팔찌					

유물자료 PPT사진은 제주에서 출토 된 박물관에 전시된 선사시대 유물자료를 중심으로 만든 자료이다. PPT사진과 유물카드는 유물 하나하나를 학습하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익히는 매체로 활용한다. 특히, 선사시대의 생활도구 자료로써 오늘날의 생활 도구와도 비교할 수 있어 상상력을 자극하며 역사적 흥미를 유도하여 제주의 선사시대를 추론할 수 있다.

⑤ 학습지 활동

학습
활동

1만 년 전, 고산리의 비밀을 풀어라!!

1. 고산리 지역의 지형을 보고 제주도의 고산리 지역에서 신석기가 시작된 이유를 이야기 해보자.



2. 선사유적지의 유물 중에서 쓰임새가 오늘날과 비슷한 생활도구를 찾아보자

유물 이름	비슷한 오늘날의 생활도구	비슷한 점	다른점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를 찾아보자.

2) 수업예시 - 고려시대 제주

제주에서 삼별초 항쟁과 몽골의 제주의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해 몽골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주는 몽골의 관할령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몽골말을 키우기 위해 목마장이 되면서 많은 농경지가 초지로 형성되었다. 문화적으로는 몽골과 고려, 제주의 문화들의 혼용이 되기 시작 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제주'에서는 향파두리의 출토 문화재를 중심으로 몽골 문화의 영향으로 제주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수·학습안을 구성해 보았다.

<표 20> 박물관 문화재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 ②

프로그램명		제주역사 2古2go 썩~!! - 항몽유적지와 삼별초 이야기-		대상	(학급단체) 초등3~5학년	
학습주제		교과서와 연계한 지역 문화재 탐구학습				
학습목표		.박물관 '고려시대 제주' 전시실의 대표적인 문화재와 사건을 통해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하여 제주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문화재의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화재를 탐구하므로 역사적 상상력과 사고력 진작을 알 수 있다.				
관련교과		<3학년>	3-1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이야기(대단원 전체)		
		<4학년>	4-1	2. 우리가 알아보는 지역의 역사(대단원 전체)		
		<5학년>	5-2	1-2.단원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중단원)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활용자료
도입	동기 부여	. 박물관이 궁금해요 . 삼별초 이야기 / 항몽유적지 기록화 보기 (http://www.jeju.go.kr/hangpadori)			20	PPT, 영상자료
전개	활동 1	문화재 관찰	* 모둠별로 나누어 서로 돌아가며 활동지를 정리하게 한다. * 활동지를 마무리 한 후 모둠별로 체험을 하게한다.		30	활동지
	활동 2	문화재 체험	※ 대상과 여건에 따라 선택 체험 * <나는야 박물관 문화재 복원사!> 향파두리 내성터에서 출토된 비늘 갑옷의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나 상상력으로 접근하여 그려보거나 당시 발굴된 고려도자기들을 맞추어 보기 * <기와 체험> 향파두리성에서 출토된 암막새 수막새에 대해 알아보고 막새 찍기를 해보자. * <고누놀이>		50	체험재료

			- 삼별초 군사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며 사용했던 고누판을 만들어 놀아보자		
정리	학습 정리	활동지 체크/ 학생 및 교사 설문		20	설문지

<표 21> '찾아가는 박물관' 문화재 활용 예시②

주제	삼별초와 몽골 문화	대상	방과후 활동 초등3~5학년	
학습목표	- 고려시대 몽골의 직할지가 되었던 제주에서 중앙의 역사관점에서 벗어나 당시 제주사람의 생활 문화적인 영향들을 알아본다.			
학습내용	- 몽골이 제주에 온 이유 알아보기 - 제주에 남아 있는 몽골의 영향들을 서로 찾아보자 - 몽골의 영향으로 이웃나라의 문물을 접한 제주 사람들의 생각들을 추론하기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 동기유발 - OX카드 (몽골영향에 대한 자료 제시) - 향파두리 출토 문화재 모형 -수업과정 안 내하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자료 ■문화재 모형
전개	(학습) - 몽골은 어떤 나라일까요? - 당시에 유행했던 몽골 문화와 몽골에 유행한 우리문화를 이야기해보자. - 몽골의 새로운 문화를 접한 제주사람들의 생각을 발표해보자. - 이웃나라에 전해 주고 싶은 제주의 아름다운 문화를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활동1) 마패 - 마패 만들기 - 마패에 그려진 말의 의미를 알아보고 마패를 만들어보자. (활동2) * 고누놀이 - 삼별초 군사들이 여가시간을 보내며 사용했던 고누판을 만들어 놀아보자 * 몽골 전통놀이 - 몽골사람들의 전통놀이인 샤가이 놀이를 하며 우리나라 공기놀이와 비교해보자.		40	제주지도 PPT/ 영상자료 마패자료 *여건에 따라 활동수를 줄여 서할 수 있다.
정리	- 학습내용정리(학습 활동지) - 다음차시 안내 - 과제안내		20	



<그림 12> 마패 만들기, 샤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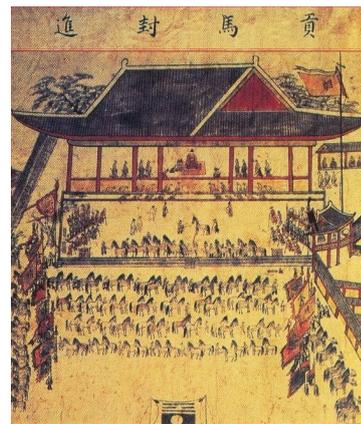
학습
활동

삼별초와 몽골 문화

1. 제주의 생활 속에 남아 있는 몽골의 문화를 조사해보자.

언어	옷	음식	기타

2. 고려시대 몽골이 제주도에 말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제주는 말을 키우기에 좋은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말을 많이 키우게 되었다. 다음 그림은 조선시대 제주의 모습을 그린 탐라순력도의 한 장면이다 무엇을 하는 그림일까



3. 다른 나라의 문화를 대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어보자

■ 활동자료

우리나라와 제주에 영향을 준 몽골의 문화 예
(설렁탕, 족두리, 만두, 애기구덕, 물 허벅, 목장) <출처: 제주도 교육청>

<그림 13> 몽골영향을 받은 문화 예

<읽기 자료> 몽골이 제주에 남긴 흔적

구렁, 적다 등 제주 조랑말의 다양한 명칭은 모두 몽고어에서 나왔다. 말안장도 한반도의 것보다는 몽고 것과 유사하다. 마소의 주인을 표시하는 낙인도 몽고의 수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다. 어린아이를 눕혀 잠재우는 '애기구덕', 물을 길는 '허벅'도 몽고의 유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이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맺었을 것이다. 제주도에는 관련된 성씨가 조선 초기까지 14개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주목 성씨 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먼저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씨의 본관은 원(元)이며 양(梁), 안(安), 강(姜), 대(對)씨의 본관은 운남이다. 운남을 본관으로 하는 4개 성씨는 원나라가 망한 뒤 명나라가 유배보낸 원의 후손들이라고 한다. 제주에는 제법 많지만 한반도 전체적으로는 흔하지 않은 좌(左)씨도 몽고에서 온 성씨이다. 또 원(元)씨 성도 같은 계통이라고 한다.

(출처: 새로 쓰는 제주사, 이영권지음)

3) 수업예시 - 조선시대 제주

조선시대는 강력한 중앙집권제의 정치운영에 의해 제주지방에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삼읍 체제로 통치하였다. 제주목을 중심으로 500여 년간 유지되었다. 그동안 제주는 말과 꿀, 해산물 등 국가의 주요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처이자, 정치인과 학자들의 유배지이기도 하였다. 국가에 올리는 진상품으로 제주민들의 고통들이 말할 수 없었고 또한 수시로 출몰하는 왜구들의 노략질에도 대항을 해야만 했다. 제주에 부임한 관리들과 유배인들의 제주입도는 제주 유교문화와 학문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조선시대 기록52)에 나오는 물허벅과 제주의 조선시대 정치·사회·문화를 총망라한 탐라순력도를 주제로 하여 교수·학습안을 계획하였다.

<표 22> 박물관 문화재 활용 지역사교육 예시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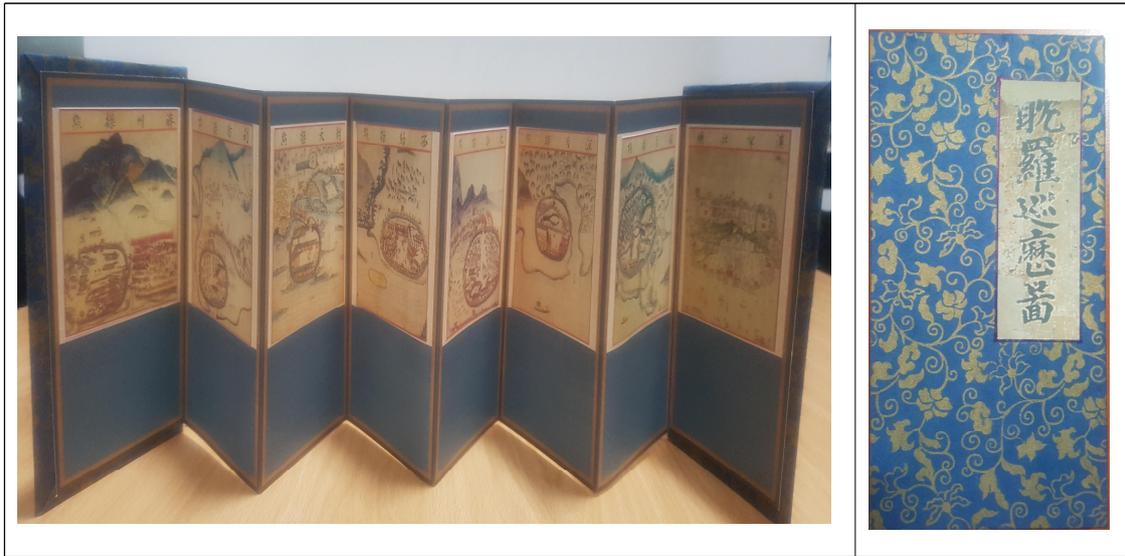
프로그램명	제주역사 2古290 썩~!! - 제주그릇 옹기-		대상	(학급단체) 초등3~5학년	
학습주제	교과서와 연계한 지역 문화재 탐구학습				
학습목표	.박물관 '조선시대 제주' 전시실의 대표적인 문화재를 통해 스스로 관찰하고 탐구하여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다. .문화재의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 보다는 학습자 스스로 문화재를 탐구하므로 역사적 상상력과 사고력 진작을 알 수 있다.				
관련교과	<3학년>	3-2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대단원 전체)		
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활용자료
도입	동기 부여	. 박물관이 궁금해요 . 박물관 관람에 대해 알아보아요.		20	PPT, 영상자료
전개	활동 1	문화재 관찰	* '조선시대 제주' 전시실을 중심으로 문화재를 관찰하고 탐구하도록 한다.	30	활동지
	활동 2	문화재 체험	* 옹기의 특징을 알아보고 특히 제주옹기가 다른 지역 옹기와 다른점을 찾아보자. 물허벅의 특징을 이야기 해보자. ※ 대상과 여건에 따라 선택 체험 * <옹기 마그네틱 만들기> 옹기재료를 가지고 물허벅, 꽃병, 향아리 모형의 작은 마그네틱 장식 만들기 * <제주 미니 옹기 만들기> 미니 물허벅 만들어 보기	50	체험재료

52) 『남사일록(南槎日錄)』에 수록된 1488년의 최부(崔溥)의 「탐라시」에 “허벅 진 춘아낙네 물 길러 샘으로 가고”라는 1703년(숙종 29) 기록이 있다. 이형상(李衡祥)의 『탐라순력도』에는 허벅을 지고 다니는 아낙네들이 그림으로 등장한다.

정리	학습 정리	활동지 체크/ 학생 및 교사 설문	20	설문지
----	-------	--------------------	----	-----

<표 21> '찾아가는 박물관' 문화재 활용 예시③

주제	300년 전의 제주도를 탐방하다.	대상	방과후 활동 초등3~5학년
학습목표	- 300년 전의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화첩인 탐라순력도를 통하여 당시 제주의 모습과 지금의 제주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내용	- 탐라순력도의 내용들을 분류해보자 - 국가 보물로 지정된 탐라순력도의 역사적 가치를 알아보자. - 18세기 초 탐라순력도의 내용과 오늘날의 제주모습의 비교하여 발표해보자.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 탐라순력도 영상 - 탐라순력도 문화재 모형 -수업과정 안 내하기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 자료 ■문화재 모형
전개	<p>(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순력도가 그려진 이유와 만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 탐라순력도 장면들의 내용을 알아보자 - 탐라순력도를 관찰하여 300년 전의 제주모습을 알아보자 -현재 제주모습과 비교하여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p>(활동1) 탐라순력도 병풍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순력도 그림을 내용면으로 나누어 병풍을 만들어 보자 <p>(활동2) <신 탐라순력도 그리기> 탐라순력도 스크래치판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기억에 남는 탐라순력도의 장면을 스크래치로 그려보기 	40	<p>PPT/ 영상자료</p> <p>*여건에 따라 활동수를 줄여 서할 수 있다.</p>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내용정리(학습 활동지) - 다음차시 안내 - 과제안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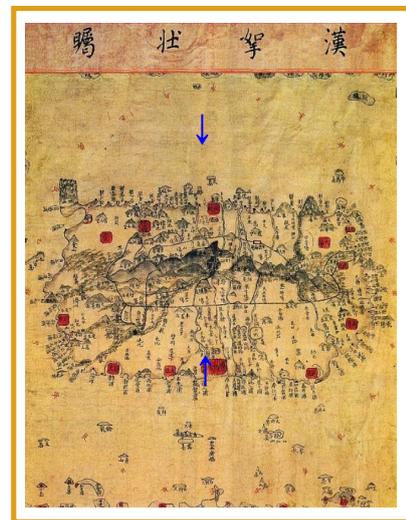


<그림 14> 탐라순력도 병풍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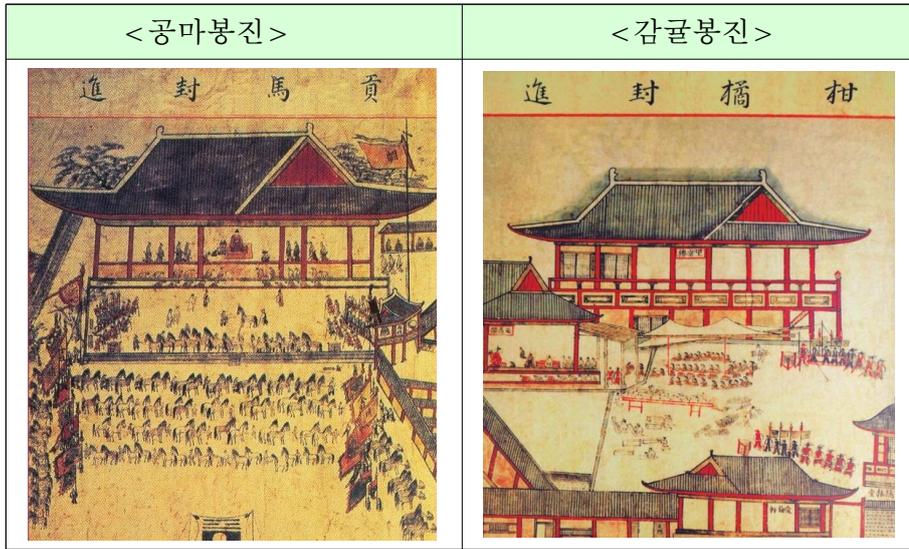
학습
활동

300년 전의 제주도를 탐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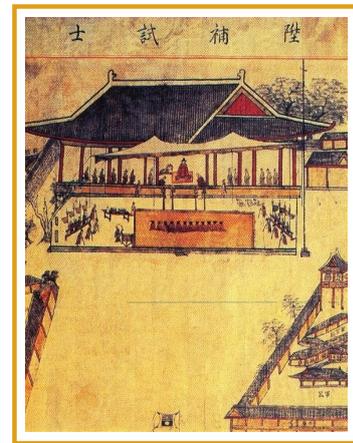
1. 탐라순력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한라장축'이다. 제주도의 옛 지도로 가장 오래된 지도이다. 지도의 특징을 찾아보자.



2.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있었다. 다음 그림의 탐라순력도에 나타나 있는 제주의 특산물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3. 오른쪽 그림은 관덕정 앞에서 '승보시사' 라는 과거 시험을 치르는 모습이다.
 승보시는 본래 성균관 유생들에게 치러진 소과(小科)의 초시(初試)에 해당하는 시험인데, 지방에서는 개성, 제주, 수원에서 시행되었다.
 우리도 과거시험대신 삼행시를 지어보자.
 (제시어는 상황에 맞게)



IV. 결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본을 알고 이해하는 데 있다. 역사를 배제한 우리의 존재는 혼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들다. 이처럼 역사는 구성원에게는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형성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사교육 과정은 초등 3,4학년부턴 시작한다. 자기가 살아가는 고장에서 지역으로 확대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5학년에서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 교육은 초등3,4학년 교과과정에서 부분단위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후 과정에서는 정규 교과수업에서는 배제된다. 그러나 초등 3,4학년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 영역은 극히 제한된 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의 문화재를 유·무형·민속자료·기념물 등을 알아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역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지역화 보완교재에 수록된 문화재를 지역박물관 전시문화재와 연계하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사 전반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교과서를 벗어나 직접 문화재를 관찰하고 탐구하는 역사적 관점을 넓힐 수 있는 박물관 및 방과 후 학교, 재량활동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지역 문화재에 근거하여 지역사 전체를 교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앞에서 시사한 바 있으나 초등과정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보다 쉬운 접근방법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통해 우선 기본적인 체계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사 교육의 주제를 학습대상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교육 자료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연구자들이 제주역사에 대해 활발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의 결과나 내용들이 학문적 연구의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구성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자료들로 재구성하여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전승되고 보존하는 것은 지역구성원들의 학습적 역할이 크다고 본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전승은 지역사회의 존재와 정체성 형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는 지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강화와 적극적으로 태도의 필요성이 있다. 단순히 교사지도서와 박물관 활동지를 벗어나 현장을 체험한 현장 지식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4학년을 담당하는 교사중심으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화재만이라도 직접 관찰하고 확인해보는 교사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는 학교와 지역 박물관과 긴밀한 연계학습의 필요성이다.

초등사회 교과과정에서는 지역화(化)의 과정에서 부분적 영역으로 지역사(史)를 배우고 있다. 따라서 교과과정에서는 3·4학년 시기에 갖게 되는 역사적 상상력과 호기심을 해결하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많다. 따라서 지역박물관과 학교연계 교육은 문화재를 직접 관찰하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자로서 매우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교의 체험활동시간과 박물관의 적절한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시간적, 공간적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박물관의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립제주박물관은 다른 지역의 국립박물관에 비해 지역프로그램구성이나 교육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하여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지역의 국립박물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이동박물관' 형태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다. 특히 지역사를 배우는 3·4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 방과후 학교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사 보완수업을 하는 방법이다. 박물관은 관람객이 직접 찾아와야만 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학교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수업에는 여러 가지 해결문제가 있으므로 '찾아가는 박물관'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교과영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찾아가는 박물관'은 박물관에서 제공되는 제주역사의 시대별 대표적인 유물모형을 학교 교실로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지면서 '교실 안 박물관' 방식을 구성하는 것이다. 교과서 사진자료나 PPT처럼 평면적인 자료가 아니라 모형문화재이지만 가시적이고 입체적이므로 관찰과 탐구영역이 확대 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것은 지역 문화재의 인식도를 크게 높일 수 있고 지역사 교육의 확대와 활성화에 부합 될 것이다. 또한 박물관으로서는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박물관의 사회기여도 측면에서 더욱 역할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본다. 하나의 문화재를 보고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은 먼저 유물을 가지고 관찰과 탐구력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전체사와 연계하여 시대적 연관성을 이해하며 지역의 역사를 학습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재 종류를 제시 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통찰력을 키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몇 가지 교수학습안과 제안을 제시하였지만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안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수업자료의 활용에서 적합성뿐만 아니라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은 교사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하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주 지역사 교육을 위해 교육요소를 문화재에 제한된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지역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통문화요소로 접근하여 교육적 체계화를 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은 그 이전 시대를 살아 온 조상들의 정신과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역사 학습에서 주지된 사실이다. 지역화(化)의 과정은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사회화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많지만 지역사(史) 교육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초등과정의 지역화 교과서를 보완하여 쉽고 재미있는 지역사 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지역 박물관을 활용하였으나 앞으로 지역사 교육이 교육과정에서부터 개선되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흡한 본 연구에 더하여 새로운 연구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교과서

초등3·4학년군 교과서 사회 3-1, 3-2

초등3·4학년군 교과서 사회 4-1, 4-2

초등3·4학년군 지역화 보완교재3 "살기 좋은 우리고장 제주시"

초등3·4학년군 지역화 보완교재4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

2. 자료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 1998

교육부, 「2015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2018.

교육부,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 2015.

국립제주박물관 교육자료집2호, 2015.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도록, 2017.

국립제주박물관 연보, 2018.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총칙, 2015 개정.

제주도청 자료, 2019.

제주도 교육청 자료, 2019

3. 단행본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5.

문화재청, 『문화재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다원, 2000.

임규혁·임웅, 『교육심리학』, 학지사, 2017.

제주사랑역사교사모임, 『청소년을 위한 제주역사』, 도서출판 각, 2009

4. 논문

강봉룡, 「초등학교 향토사교육의 실제와 지향점」, 『역사교육』 87, 역사교육 연구회 87, 2003.

강선주, 「박물관 활용 역사수업 방안」, 『기전문화연구』 34 경기대학교 기전문화연구회, 2008.

권영오, 「유물자료를 활용한 한국사 교실 수업」, 『역사와 세계』 39, 부산대학교 효원사학회, 2011.

박상혜, 「상상적 접근 질문을 통한 문화재 교육 방안」, 『교육문화연구』 24권3호,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 송춘영,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교재 지도방안」, 『역사교육론집』 13·14합집, 역사교육학회, 1990.
- 이해준, 「지역문화 연구의 과제와 자료 활용 방향」, 『지방사와 지방문화』 1, 역사문화학회, 1998.
- 전영준, 「역사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중등역사수업의 문화재 교육」, 『역사실학』 66, 역사실학회, 2018.
- 조상제, 「교육과정의 운영과 향토사교육」, 『역사교육』 68, 역사교육연구회 1998.
- 최용규·권오현·김주성·김한중·황인석·조운호·김태완·이해영·장영기, 「초·중학교 문화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05~2006년 문화재청 위탁연구과제 답신보고』,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 연구소, 2006.
-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박물관(미술관)교육의 이론과 학습 환경」, 『한국박물관교육학회』 5, 2012.
- 황현정, 「지역사·역사수업, 그리고 역사교사」, 『역사와 교육』 7, 역사교육연구소 2013.

5. 학위논문

- 강경미, 「濟州道 初等 社會科 地域 化教授·學習에 關한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강은실,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고안나, 「제주신화를 활용한 향토사 학습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문은아,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지역화 학습을 위한 현장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주민속촌 박물관을 사례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손연주, 「초등학교와 연계한 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5쪽.
- 오아린, 「인천지역 고등학생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사 학습방안연구-인천시립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쪽.
- 윤기혁, 「박물관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제주 돌 문화 공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문정, 「제주도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문정, 「제주도 박물관·미술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임보아, 「선사유적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분석: 제주 삼양동유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정영임, 「제주지역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과 활성화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희정, 「초등학교 사회과교과서 문화재관련 내용의 분석과 재구성」, 경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12-13쪽
- 한은미, 「『탐라순력도』를 활용한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한지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제주박물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현을생, 「제주도 문화재 보존과 활용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국문 초록

제주는 독특한 자연환경 속에 축적되어온 제주만의 독립적이고 특수성을 지닌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 역사연구의 다변화로 거시적인 관점의 국가 전체사 역사 인식을 극복하고 생활·문화사 중심의 미시적 역사교육이 확대되었다. 이에 교육과정의 강화에 따라 지역의 생활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 사회교과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 교육을 위해 새로운 보완교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등 3·4학년 과정에서 교과서에 따른 지역화 보완교재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구성원으로 공동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지역에 대해 역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포함하는 지역 전반적인 학습 교재이므로 지역사적인 부분의 서술이 적고 내용도 소략하다. 지역사(史)도 지역화(化)의 한 과정이지만 주체적이고 근본적인 지역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에서 비롯된다.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는 지역의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지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화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된 초등 3·4학년 시기에 집중하여 활성화 방안들을 연구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초등사회과의 지역화 보완교재에서 제주 지역사 영역이 상당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국립제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역유물을 중심으로 박물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지역사 영역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친근하고 익숙한 지역문화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과 역사적 상상력을 극대화하여 추체험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통해 우선 기반적인 체계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역사 교육의 주제를 학습대상에 따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교육 자료로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의 연구자들이 제주역사에 대해 활발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연구의 결과나 내용들이 학문적 연구의 성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구성원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자료들로 재구성하여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량강화와 적극적으로 태도이다. 단순히 교사지도서와 박물관 활동지를 벗어나 현장을 체험한 현장 지식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유발에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학교와 지역 박물관과 긴밀한 연계학습의 필요성이다. 교과과정에서는 3·4학년 시기에 갖게 되는 역사적 상상력과 호기심을 해결하기에는 제한적 요소가 많

다. 따라서 지역박물관과 학교연계 교육은 문화재를 직접 관찰하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자로서 매우 유의미한 학습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박물관의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국립제주박물관은 다른 지역의 국립박물관에 비해 지역프로그램구성이나 교육이 다양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하여 '찾아가는 박물관'으로 지역의 국립박물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이동박물관' 형태의 프로그램의 재구성이다. 특히 지역사를 배우는 3·4학년층을 대상으로 각 방과후 학교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보완수업을 하는 방법이다. 박물관은 관람객이 직접 찾아와야만 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학교는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는 수업에는 여러 가지 해결문제가 있으므로 '찾아가는 박물관'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교과영역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화(化)의 과정은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사회화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많지만 지역사(史) 교육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초등과정의 지역화 교과서를 보완하여 쉽고 재미있는 지역사 교육을 지향하기 위하여 지역 박물관을 활용하였으나 앞으로 지역사 교육이 교육과정에서부터 개선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지역사, 박물관교육, 문화재 활용

Abstract

Jeju has an independent and distinct history and culture that has resulted from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Recently, with the diversification of history research, microscopic history education based on the history of life and culture has been expanded beyond the perception of whole history of a nation from a macroscopic perspective.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regional living and traditional cultures due to the reinforcement of curriculum. Localized materials are additionally provided to supplement the textbook for the 3rd and 4th years of elementary school, given that new supplementary materials are necessary to utilize the social studies textbook amended in 2015 more effectively and provide regional history education that fit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y are general learning materials that include the history and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henomena of the region to help students to adapt to the community society as a member, and thus contain less description and content of the regional history. The regional history is also a part of localization; the sense of community as an independent and fundamental member is originated from the regional history.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history education helps cultivate the identity of the region and becomes the driving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regional history and study revitalization measures, with focus on the 3rd and 4th years of elementary school where localized education is included in the regular curriculum. Based on the fact that the supplementary localized materials for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school significantly lack the regional history of Jeju, this study intend to revitalize the area of regional history by re-organizing the museum programs based on the regional relics preserved in the Jeju National Museum. Such attempt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maximize the historical thinking and imagination of children and practice experience education efficiently by utilizing friendly and familiar regional cultural properties preserved in regional museums. To revitalize regional history education, which is the goal of this study, foundational systems and efforts are necessary first along with several sugges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topics of regional history education with specific and objective educational materials according to learners. Local researchers

have been actively conducting studies regarding the history of Jeju. However, the results or content of the studies should be re-organized and shared as objective and systematic educational materials to educate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simply treating them as academic research results. Second, the capabilities and positive attitude of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regional history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Knowledge based on field experiences beyond the teacher's manual and the activity paper in the museum has great influence on increasing the interest and motivation of learners. Third, learning should be practiced based on close connection between schools and regional museums. The current curriculum has many limiting factors to satisfy the historical imagination and curiosity of students in their 3rd and 4th years. Therefore, in learning based on close connection between schools and regional museums, we can expect very significant learning results as active learners in the process of direct observation and exploration of cultural properties. Lastly, the positive activities of regional museums are necessary. The Jeju National Museum operates various regional programs and educations in comparison to national museums in other regions. The museum, as a national museum in the region, reorganized the outreach museum program in the form of a mobile museum for the community. In particular, this program provides supplementary regional history classes using each after-school program targeting 3rd and 4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who learn the regional history. Museums have a limitation that spectators should visit it and schools may face various problems for outside school classes. However, the outreach museum program can address such problems and allow for various academic subjects. Students often learn the localization process by themselves through a socialization process while growing up as members of the community, but the regional history education is mainly administered through learning. This study suggested using regional museums for easy and interesting regional history education by supplementing the localized textbook currently distributed. However, the curriculum should be improved and the regional history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in the future.

{Keyword} regional history, museum education,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